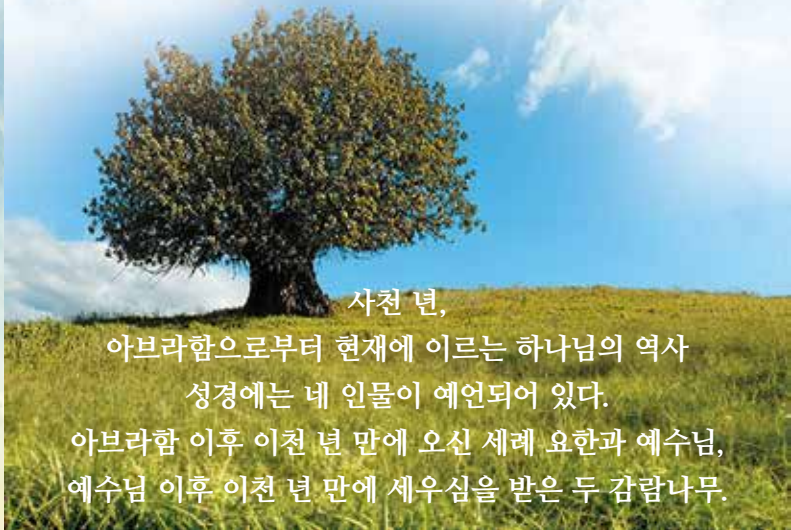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5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2월 2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297-0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5



저자 (1978년 당시)



알곡종합운동장. 알곡종합운동장은 천연 잔디로 된 축구장과 국제 규모의 육상 트랙, 그리고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었다. 그 위로 편의시설을 갖춘 ‘꿈의 성’과 놀이동산이 있다.



보훈단체 돕기 행사. 매년 보훈단체 돕기 행사로 연예인 축구단을 초청하여 친선축구경기를 하고 있다.

Prologue

“책머리에”

기독교는 덕을 초월한다. 이것은 구속의 대전제이다. 인간이 덕으로는 생명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된다. 휴머니즘(인도주의)이 벽에 부딪혔을 때 눈앞에 뚫린 작은 통로—이것이 곧 생명에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절망 속에 비치는 한 가닥 섬광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덕에 약하다. 덕을 쌓을수록 자기 허물을 더욱 많이 의식하게 마련인 것이 인간이라는 이름의 귀중한 동물이자. 그러기에 주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마19:17)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 자신도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고백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덕을 강조하신다. 덕을 초월하려면 덕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

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리상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기독교론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즉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는 구원론이 논쟁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성경의 권위가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문제되어,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 자유주의 신학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리하여 신학이 점점 세상 학문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그것이 인간의 글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라는 데 있다. 이것은 누구나 눈이 열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수긍할 수 있지만, 여기 신앙 체험이 곁들이면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큰 은총만 해도 그렇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있으며, 성령이 이를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논쟁은 이미 발간된 ‘에덴의 메아리’에도 언급되어, 시비를 가리고 있다.

그럼 오늘날 이 시점에서 성경상 가장 요긴한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겠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궁금한 것이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인간이 저술한 미래학(未來學)이나 모든 사이비(似而非) 예언서에 의해서는 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의 종이 터뜨리는 새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연고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간곡한 당부이기도 하다.(요16:13)

오늘날 우리가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주 말세를 운운한다. 그런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수명이 어디까지 왔는지 비교적 정확히 짚어볼 시기가 된 것이다. 지구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한계를 여러 모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현상은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잠시 덮어두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에 의해, 지구의 절박한 사정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인구 폭발이다. 오늘날 지구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40억의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세계 인구의 8%가 기아선상에 허덕이다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범세계적으로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구는 해마다 2%를 넘는 증가율을 보여, 불원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서면 70억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둘째로 이상 기온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70년만의 가뭄으로 목이

타는데, 서독에서는 100년만의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서는 겨울에 유례없는 심한 한파가 몰아치더니, 여름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 40년만의 더위를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소련에서는 7월에서 8월에 걸쳐 기록적인 폭서가 계속되더니, 9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1도까지 급강하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해마다 기록을 깨는 고온, 또는 저온, 폭우, 가뭄 등으로 곡식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뿐더러, 전 세계의 사막이 점점 확대되어 전답과 녹지대를 먹어 들어가는데, 그 넓이는 해마다 우리나라 충청, 전라, 경상 6개 도를 합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계속되면, 세계적인 흉작으로 말미암아 ‘식량난’이 아니라, ‘식량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빚어지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이상 기상 속에 빙하기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즉 지구의 기온이 1940년을 고비로 해마다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 1970년 봄에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가 온통 얼음으로 메워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기상학계에서는 이것을 큰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로 지하자원의 고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이른바 ‘석유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그 석유도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동이 나는 것이다. 장차 20년 안팎에 바닥이 날 지하자원은 석유를 비롯하여 금, 은, 동, 주석, 납, 천연가스 등 실로 놀라운 가짓수

에 이르고 있으며, 이 밖의 자원도 수명이 그다지 길지 못하다. 설사 앞으로 새로운 자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세계의 모든 지하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넷째 가공할 무기 생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그리고 레이저 광선에 의한 살인 무기, 이 밖에 여러 가지 생물 및 화학 무기의 등장으로 인류를 공포 분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공할 무기들은 날로 발달되고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웬만한 나라들이 원자폭탄 쬐은 갖게 되리라고 한다. 지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격이다.

다섯째로 오염 공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폐수로 한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물론 약과이다. 앞에서 말한 이상 기온의 원인의 하나는 인간에 의한 대기 오염에 있다고 한다. 즉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가 햇살을 가로막아 대기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이다. 세계 도처의 공장 굴뚝에서 하늘에 토해내는 연기와 수많은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해독도 크지만, 성층권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초음속 여객기의 폐단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된 지역은 대기와 수질과 땅의 성분까지도 오염되어,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근래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큰 지진이나, 최근 수 년 동안에 세계 각처에서 목격하는 정체 모를 비행접시의 수가 급속도

로 증가하는 현상도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다.

이것이 지구에 대한 오늘의 진단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임종이 가까웠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복적거리고 있는 이 지구는 한 척의 우주선으로 볼 수 있다. 이 우주선 지구호에는 많은 인간과 동, 식물을 태우고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 지구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만은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럼 이 지구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다. 왜냐하면,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한 산아제한, 품종 개량에 의한 식량 증산,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소위 데탕트(평화정책)나 군축 회담 등, 일련의 노력이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구의 위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손길이 뻗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인간사(人間事)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빈틈없는 스케줄(예정표)에 의하여, 일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사24:19, 마24:6, 29, 눅21:11, 계6:16 참조)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20세기 후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진지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대답의 윤곽은 이미 주어졌다고 본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그 섭리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여 결정을 내릴 여지는 다분히 배제되어 있다. 하늘의 은총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경을 상고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때가 때인 만큼,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이 땅에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다. 이 설교집은 이 역사의 산 증언이며, 거기에는 오늘의 복음이 담겨 있다. 이것은 눈이 있어 읽는 분들이 나보다 더 잘 알 것이다. 은혜 받으시기 바란다.

1978년 6월 최 현

Prologue

“재판에 즈음하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감람나무 역사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중에는 사단의 눈을 피해 짐짓 가려놓은 부분이 적지 않으나, 이제 때가 때인 만큼 나중 감람나무의 입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은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로 계속 발간되고 있으나, 주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여 이제야 재판이 나오게

되었다. 몇 군데 잔손질을 한 것은 이미 간행된 설교집 전체와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이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위해 수고하신 윤상학 박사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2004년 6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책머리에 ... 06
재판을 즈음하여 ... 13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5

Part 01.

말씀의 향연

01 지금은 어느 때인가? 26
02 수에 대하여 34
03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38
04 피(血)에 대하여 44
05 끝까지 이기라 48
06 추수감사절의 의의 54
07 천당과 지옥 58
08 아는 것이 힘이다 69
09 요한과 물세례 74
10 그릇을 준비하라 78
11 승자와 패자 84
12 오늘의 예수 88

Part 02.

빛을 찾아서

- 13 언약과 섭리 94
- 14 계시록의 7복 118

Part 03.

이기는 그 날까지

- 15 초림과 재림 148
- 16 여호와를 두렵게 섬기라! 155
- 17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161
- 18 섭리와 경륜 164
- 19 임마누엘에 대하여 170
- 20 예언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174
- 21 유월절에 대하여 178
- 22 영광의 반열(1) 184
- 23 영광의 반열(2) 188
- 24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192

Part 04.

예루살렘의 별

- 25 가인과 아벨 200
- 26 마가엘 천사장에 대하여 205
- 27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 208
- 28 영의 양식에 대하여 215
- 29 이긴자의 철장 221
- 30 시대와 축복 226
- 31 하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 231
- 32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236
- 33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240
- 34 성령을 받으라! 244

Part 05.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35 만나의 시대와 흰 돌의 시대 250
- 36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쓰신다 254
- 37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259
- 38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길 264
- 39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271
- 40 귀가 있으면 들으라 277
- 41 여호와와 치리에 대하여 284
- 42 사망과 부활 289
- 43 마귀를 대적하라 293
- 44 영의 세계에 대하여 302

Part 01.

말씀의 향연



1. 지금은 어느 때인가? · 2. 수에 대하여 · 3.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 4. 피(血)에 대하여 · 5. 끝까지 이기라 · 6. 추수감사절의 의미 · 7. 천당과 지옥 · 8. 아는 것이 힘이다 · 9. 요한과 물세례 · 10. 그릇을 준비하라 · 11. 승자와 패자 · 12. 오늘의 예수

Chapter 01.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될 것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림이고, 앞으로 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도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오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마디로 “원수를 발등상 시킨다.”(사110:1, 눅20:43)고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는 하늘 군병의 수가 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성령에 힘입어 해야 할 일은 이 마귀의 세력을 꺾는 군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체인 마귀는 우리의 최대 강적(強敵)이기 때문입

니다. 여러분을 이 군병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의 피가 담긴 생수입니다.

생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렘2:13, 속 14:8, 요4:10) 주의 종이 입김을 부어서 된 이 생수는 성도의 심령을 맑히는 신령한 축복의 물질로, 병에 넣어 몇 해를 두어도 썩는 일이 없습니다. 생수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가 많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썩을 것이 썩지 않는다.”(고전15:53)는 성경 말씀 그대로, 뽀뽀이 굳어버린 송장도 생수를 바르고 기도하면 노글노글 부드럽고 아름답게 변하고, 고약한 냄새가 말끔히 가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 차례 보아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생수의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시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사12:3) 시대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계21:7)는 말씀이 응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긴자란 생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어 수시로 죄의 때를 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현재 이 생수를 마시면서 영의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고전4:20) 주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지성

소에 가 있는 못 선지자들이 부러운 눈으로 내려다보는 시대, 이 긴자가 역사하는 생수의 시대가 바야흐로 열린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7:38-39)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언약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 즉 생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물세례를 주자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우러러본 것은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신들메도 풀 수 없는’ 위대한 분이 나타났지만, 그분도 생수의 은총은 뒤로 미룬 채 승천해 버렸습니다. 물론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병 2어와 같은 신령한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떡을 배불리 먹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척 놀라운 일 같지만 그것은 깊은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수의 은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 당시에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갔다면, (슥14:8) 하나님의 일은 끝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 그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파격적인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수의 은총은, 물론 ‘생수의 근원’(렘2:13)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며, 주의 피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게 되어있습니다.(계21:7)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생수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계2:26, 28)는 주의 언약도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주님 당시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함께 식사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주님을 시골 목수로만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긴자를 아는 사람도 주의 보혜사 성령을 받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뿐입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자를 모르고 보낸 자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요 14:9) 이긴자를 만난 자는 주님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생수의 시대’입니다.

생수란 아무 때나, 또 주의 종이라고 해서 누구나 양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생수는 주의 시대에도 ‘주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산 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이처럼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란 바로 주의 보혈, 곧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담긴 물인데, 보혜사 성령을 흡족히 받은 바울이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들이 따르는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다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긴자에게만 “유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계21:6-7) 즉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속14:7-8) 흐르게 되며,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은 ‘생수의 시대’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긴자는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는 죄를 씻는 영의 양식으로, 몇 해를 두어도 썩지 않으며, 송장에 바르면 창백하던 송장이 혈색이 돌아 아름답게 변하고, 때로는 빨간 피로 보이기도 하여, 영을 분별하는 힘이 강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은(마8:28-29 참조) 흔히 피라고 합니다. 이런 생수가 흐르는 시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만 있을 수 있으며,(속14:7)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생수는, 여러분이 보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맹물에 입김을 훑 불어넣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주께서 나를 수도관과 같은 연결 수단으로 사용하여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재료는 주님이 갖고 계시지만, 생수를 전

해주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인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고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이영수를 통해서 그런 신령한 영의 양식이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이영수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며, 또 믿음이 남달리 독실해서도 아닙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들어 쓰시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눅4:6)는 스가랴의 말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례를 주기는 했으나, 그것은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였습니다.(행19:6) 나도 바울처럼 안찰을 하여 성령의 세례를 주지만, 바울이 생수를 주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피가 담긴 생수를 마시고 눈을 닦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물건에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레6:18) 생수가 영의 양식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 때에 맹물로 세례를 주어도 축복이 임했는데, 하물며 주의 피가 담겨 썩지 않는 생수를 마실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생수는 구약 시대에 성소에 둔 거룩한 음식인, 제사장들만 먹던 진설병(陳設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진설병이나 생수는 영적인 접붙임, 곧 축복을 해주는

매개체(媒介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매개체는 반드시 물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물질이라도 축복이 가해지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그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데 제일 간편하기 때문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그 밖의 물질에 축복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웬만큼 받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부정(不淨)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마귀에게 썩운다고 말합니다. 가령 자기 밑천이 만 원 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에게 몽땅 적선을 하면 빈털터리가 되어 이번에는 남에게 구걸을 다녀야 하는데, 영의 축복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주어도 자기 것이 언제나 유지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 마음대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축복하는 장본인에게서는 상대방에게 거룩한 것이 나가기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죄인이 마시고 정결해지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죄를 벗어버린 자가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생수도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히고.”(계22:1-2)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죄짓기 전의 아름다운 에덴동산에

도 이와 비슷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창2:10) 죄를 모르던 신령한 아담, 하와가 마시고 또 미역도 감던, 맑고 깨끗한 강입니다. 죄인이 마시는 생수의 발원지는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슌14:8) 이때 예루살렘은 육의 세계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 즉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계21:2) 그곳에는 하나님과 주님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계22:1)

Chapter 02.

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예정 가운데 숫자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수가 3과 4와 7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전에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은 하늘의 수요, 4는 땅의 수이며, 이 하늘과 땅의 수가 합쳐질 때 온전한 수 7을 이루는 것입니다. 3수의 경우를 보면, 성부, 성자, 성신이나, 성신과 물과 피, 또는 불과 이슬과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숫자적인 움직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 한 때 육을 입고 지상에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존재로서는 3수로, 땅의 존재로서는 4수로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삼년간의 전도와 3일만의 부활과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진 일은 하늘의 존재로서의

움직임이고, 40일의 금식과 부활 후 40일의 역사는 땅의 존재로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4수로 말하면,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종 모세는 궁궐과 광야의 생활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류한 시간 등 모두 4수로 움직였으며,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나 사사들의 치리 기간도 주로 4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수는 3수요, 땅의 수는 4수로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의 수가 결합되어 7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지막 완성의 예언서인 계시록이 7수에서 시작하여 7수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7수가 많이 나옵니다.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등이 그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불완전한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쳐져 명실공히 완전수가 될 때 비로소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계11:15)라는 말씀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수나 땅의 수 중에서 어느 한쪽이 미흡하면 이 최악 세상은 그대로 존속되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땅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요컨대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를 산 제물이 되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만만치 않은 적대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마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존재를 우습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침체 상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귀를 꺾는 무기가 곧 주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과 후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피를 흘리시기 전에는 마귀가 주님 앞에서도 으스스대며 마음대로 시험했으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주께서 부활하시고, 잠자던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도 속수무책이고, 또 오순절 날에 내린 성령 앞에 절절 매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피 권세를 쥐고 계시니까 이제 마귀를 꺾는 것쯤 걱정할 것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2천 년 역사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이 시간 현재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무기를 제공했으며, 싸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긴자에게 승리의 피 권세를 맡겨 총공세를 취하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완전히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 보혈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금식기도, 산기도 하고, 열심히 매달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는 모범적인 신자라도 그 은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왜? 쓸 재목(하늘의 군대)이 못되기 때
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역사하
고 계시며, 그 때문에 성도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는 마귀보다 매우 불리한 입장에 계십니다. 여
러분, 내 말이 곧이들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3년 동안 열심히
새벽 재단 쌓으면서 애써 간수한 은혜도 하루아침에 쏟아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일도 그렇습니다. 옷을 더럽히기는 쉬워도,
빨기는 어렵습니다.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수는 주께서 이미 완성했습니다. 땅의 수는 하나님의 종
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종들이 이를 위해 수고했으며, 지금
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수가 미완성 상태에 있습
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
니다. 40억이 다 신도가 되어도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소
용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Chapter 03.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구약 시대부터 있어온 두 종파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견해를 달리했을 뿐더러 서로 시기와 반목을 일삼아 왔습니다. 즉 사두개파는 귀족적인 반면에 바리새파는 평민적이고, 전자는 정치적이고 후자는 종교적이며, 전자는 부활을 부인하고 후자는 부활을 인정하였습니다.(행23:8)

그런데 ‘부활’이라는 말은 주님이 비로소 입 밖에 내었으며,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부활에 대한 깊은 이치를 잘 몰랐습니다. 다만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음부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시16:10)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설사 인정했다손 치더라도, 영혼 불멸과 관련시켜 희미한 의식(意識)을 가졌을 뿐, 그 영적인 의미는 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두 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각각 주님과 성경 토론을 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파 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주께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활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11:25) 요컨대 기독교의 핵심은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기독교에서 부활의 교리를 빼면 한갓 사랑의 종교, 즉 모럴(도덕)에 그치고 맙니다. 그러니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과 주님은 그야말로 양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들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파가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반목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득세하기 위해 바리새파와 때때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이들은 깊이 생각한 끝에 주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 공세를 펴기로 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결혼하여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일곱 형제가 차례로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마22:23-28)

이들은 주님이 주장하신 부활을 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주께서 “그 여자는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된다.”고 대답하면 천국보다 더 더러운 곳은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도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없다.”고 대답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잔뜩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부활할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저들의 육적인 질문에 대해, 주님은 영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안이 병병할 수밖에요. 주님은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죽어서 아주 없어졌다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죽어도 죽지 않고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망신시키려던 저들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동생이 청상과부가 된 형수와 강제로 결혼하도록 율법으로 묶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민들의 혈통을 중요시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이 혈통의 보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호적상 죽은 형의 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그때 비로소 그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이 아들 하나만 낳았다면 자기 후사는 적어도 호적상 끊기게 마련입니다.

만일 동생이 형수가 늙었다거나 얼굴이 미워 결혼하기를 꺼린다면 형수는 마을의 장로들 앞에서 이 사실을 공개하여 시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수가 청상과부가 되는 날에는 꿈쩍 못하고 동생은 형수의 남편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한 다음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떠보았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마22:36) 이것은 물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해답이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배우지 못한 주님의 실력을 떠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저들은 속으로 ‘제법 이구나!’ 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덤비는 수작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아, 그야 다윗의 자손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구약)에 정통하여, 이런 질문쯤에

대답이 막힐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마22:45)

주님은 영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잘 모르는 이들은 여기서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역시 사두개인과 마찬가지로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학무식한 줄로 알았던 주님은 유식한 이들의 선생님이 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모두가 성령의 조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은 물론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습니다. 아니 우주의 창엽에 여호와와 함께 동참하신 주님이십니다.(창1:26) 다시 말해서 주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보다도 더 어른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지구의 한 모퉁이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의 옷(육신)을 잠시 빌어 입었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그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주를 지으신 주님을 상기해 보십시오. 해답이 스스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주님의 영적인 질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말았을까요? 이들은 율법주의자로 영의 문제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는 율법으로 아무리 따져 봐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처형한 원인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쯤은 모세의 전례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갔는데, 말씀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

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부터가 비위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거쳐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내 피를 마셔라.” 등, 그밖에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깊은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은혜에 도달하기 위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다리’를 ‘뫼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갈3:24) 일단 은혜에 접하게 되면 율법은 은혜 아래 속하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율법과 은혜로 나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차원(次元)이 다릅니다.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지만, 일단 은혜에 접하면 율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율법, 곧 자유의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동을 취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하나님의 눈 밖에 난다면? — 그러나 그를 구속할 율법(모세)은 없으므로 당장에 어떤 제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죄를 지으면 은혜가 떠나고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갈3:10) 이것은 은혜를 받았다가 놓쳐 버리고 다시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이면 경험을 통하여 잘 알 것입니다.

Chapter 04.

피(血)에 대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은 수천 년 동안에 걸쳐 아주 굳어 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인간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인간이란 이리저리한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맨 처음에 순결한 영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지었다.”(창1:26)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가리키며, 하나님과 주님의 ‘형상’과 ‘모양’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므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에덴동산에서 살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

지게 되자 인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창3:17-19)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부어 넣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흙은 아담의 형체를 이루기는 했으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과 뼈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 보다 신령한 형체였던 것입니다. 비유해 말하면 부활하신 주께서 지닌 형체와 방불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24:39) 주께서 손과 발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영안을 뜨게 해서 비로소 보여준 손과 발이며, 우리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와 비슷한 인간의 신령한 형체는 타락한 후로 육신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는 혼으로 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양자(육과 혼)를 아울러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혼은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 있는 그릇으로, 영과 혼은 흔히 혼동하여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분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살전5:23) 우리가 타고난 혼과는 달리, 이 ‘영’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여 그릇(혼)이 정결하면 영이 오래 담겨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영은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당부는 요컨대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선천적인 혼은 인간의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피입니다. 흔히 두뇌 속에 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피는 곧 생명이요, (레17:11) 생명의 요소는 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피가 전신을 돌 때 전신의 모든 기관(器官)이 제 구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은 온 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혼을 넓은 의미에서 정신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을 발명해내기 전에는 박테리아(세균)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좀먹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몇백 배로 확대시켜 큰 세균만 알아보던 현미경의 렌즈를,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이렇게 정밀 도수가 늘어감에 따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바이러스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를 분석해 보고 사람의 성격을 대충 구분합니다. 지금은 A형, B형, O형, AB형, 이 밖에 또 무슨 형, 해서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혈액형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핏속에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혼도 가지각색입니다. 아니 혼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요컨대 이 혼을 주의 영의 모습에 가깝

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히9:22) 주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히9:22)

오늘날 피에 갇든 인간의 혼을 놓고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편에 서면 그 사람의 혼이 마귀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어떻게 씻는가? 이 피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 곧 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말은 ‘생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눅13:1) 기독교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식구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05.

끝까지 이기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토록 우매했을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주책을 부렸을까?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하여 모르기로 말하면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는 서운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문제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하여 배워서, 이견 이렇고 저견 저렇다고 머리로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데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이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 태도는 흔들리기 쉽고, 언제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게 되면, 즉 그 앞이 몸에 배이면 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앞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이 단상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깊은 말씀을 듣고 감탄도 하고, 또 배우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골수에 박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있는가, 한 번 반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자 자기가 아는 것이 앞에서 말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성경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약2:17) 머릿속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을 뿐,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만날 그 타령이라면 말씀에 의해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자는 것입니까? 마음을 새로 갖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썩히는 앞이라면 아나 마나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마5:4)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선 가슴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님을 찾기 쉬운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찬송 자체가 하나의 전쟁입니

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실제로 마귀가 여러 모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칫하면 생각은 고스란히 마귀에게 내어주고, 건성으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틀렸나. 나도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곡조를 합해 찬송을 불러도 하늘에 상달되는 찬송은 따로 있습니다.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가 하나님에게 올릴 만한 찬송만 일일이 골라서 바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8:3 참조)

찬송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것을 하늘에 올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즉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마음이 가난하다.”(마5:3)고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 미움, 교만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찬송은 주님과 연결되지 못합니다. 성경 잘 알고, 연조가 깊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것으로 되는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찬송이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은혜가 연결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 불러도 진실된 마음에서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뼈저린 노력 없이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하고 주님 — 이렇게 단출하다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하고 주님 사이를 한사코 가로막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샌드위치에 되어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번번

이 은혜줄을 놓쳐 버립니다. 그러니 인내와 열성 없이는 이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여 이기고 또 이겨야만 겨우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마귀와의 3차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 하늘의 군대에 뽑히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이런 군병은 한 세대에 몇 사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총을 내려 그 군대를 단시일에 많이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큰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도 하늘의 군대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역사에 몸담았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자신의 매달림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물론 주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피나는 노력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교회 문을 드나들어서는 겨우 구원이나 얻는 혜택을 받을 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군병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기분이 내키는 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잘 믿고, 기분이 언짢으면 토라지고... 나 살자고 믿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군병이 되어 달라고 모처럼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쓸 만함 그 군대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외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

은 앞선 역사에서 주의 피를 헛되이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여러분께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회개하여 자범죄를 사함 받는 경우와, 이 손길이 닿아 한평생 쌓이고 쌓인 모든 죄(원죄, 유전죄, 자범죄)가 소멸되는 경우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죄가 소멸된다는 것은 죄(자범죄)가 뭔지도 모르는, 회개도 물론 할 수 없는 어린애를 안찰했을 때 처음에는 몹시 아파서 보채다가, 두 번 세 번 안찰을 받을수록 아픔이 가셔지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애가 물려받은 원죄와 유전죄가 차츰 소멸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동시에 성령을 받았을 때, 각자 그 강도(強度)에 차이는 있었지만, 남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남에게 부어 줄 정도로 성령을 넘치게 받았으며,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의 역사로 간간이 명맥(命脈)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와 같은 세 증거(불, 이슬, 생수)의 성령은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늘의 군대로 추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께서 이긴자를 내세워 하늘 군대의 수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주의 피 권세로 여러분을 주 앞에 다듬어 세워 그 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남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으나, 이런 사명은 맡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통해 내리는 이 은혜줄을 든든히 잡고 따르라고 누차 말

씀드리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줄기를 놓치면 첫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둘째, 군병의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고 또 이기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Chapter 06.

추수감사절의 의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전에 주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관련시켜 두어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성회 창립 네 돌을 맞아 특별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신약 시대의 제사와 관련시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문자 그대로 밭에서 1년 동안 땀을 흘려 가꾼 곡식을 추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철 따라 햇빛과 우로(雨露)를 내려 곡식을 키워 일용할 양식을 마련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뜻에서 드리는 축제로, 농부들에게는 실감이 가겠지만 우리들처럼 농사를 짓지 않는 백성들은 추수하는 노고와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하나의 폐단으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의의는 보다 깊은 데서 찾아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즉,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 두어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13:24-30)

이 말씀을 우리는 별로 유의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로 보아 넘기기가 일쑤이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주님은 육을 입고 땅에 계실 때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빌어 당신에 관해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도록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했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습니다. 설교도 맘대로 못하고 예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려 함이라.” (마1:22, 막14:49, 요12:38)는 말씀이 자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밭에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해서는 안 될 테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일렸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는 각각 갈 곳이 따로 있으니, 그때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실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심판을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여기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도하기 위한 경고 정도로 생

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심판도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하나의 룰(규례)로,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할 수 없어, 나중에 주님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렸습니다.(마13:10) 그때 주님은 비유를 자상하게 풀이하시면서 ‘원수’는 ‘마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밭에 마귀는 ‘사람들이 잘 때’에 나타나 가라지의 씨를 살짝 뿌려놓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몰래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농간에 걸린 장본인은 그런 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추수꾼’을 ‘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수할 때, 즉 심판 때에는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계14:14-15) 여기 구름 위에 앉은, 낫을 든 이는 ‘이긴자’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주의 지시를 받아 이긴자에게 추수 때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수 때에 알곡과 쪽정이가 구분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2차 전쟁 말기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의 영적인 추수에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가라지를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계14:18 참조) 이 두 차례의 추수에서 가라지(쪽정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한다.”(렘31:7)고 했으며,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마22:14)고 했습니다. 알곡보다 쪽정어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전에 ‘주의 이름으로 이적 기사를 행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들’까지도 그 날(추수 때)에 주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마7:2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로 탈바꿈을 한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Chapter 07.

천당과 지옥



1) 영체의 대결

영의 세계는 지상의 세계와 판이하지만, 비슷한 면도 더러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겨루는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예컨대 14만 4천으로 헤아리는 하늘나라의 군병의 수가 차면 천년 세계가 펼쳐지고, 천 년이 차면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 심판을 하게 되는 것도 이 섭리의 하나입니다.(계20:12-13) 천국과 지옥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사람은 섭리상 지옥 불에 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이 어느 쪽에 속하여,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이 만일 일종의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의미에 그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도학자(道學者)—그것도 거짓말을 잘하는 도학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나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랬고,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의 출현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적인 인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마24:35)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죽으면 곧장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육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지성소가 아니면 음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즉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계20:4)들은 지성소에 가서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계6:10 참조) 그렇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공경하여도 여전히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숭배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심판 때까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0:13) 성경은 이에 대해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계6:8)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

은 자의 영혼은 일단 지성소나 음부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국이나 지옥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옥의 경우는 ‘꺼지지 않는 불’(막9:43) 또는 ‘불못’(계20:15)으로 표시되고, 그 이상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이긴자를 통해 그 내용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단12:9) 성경에 기록된 ‘불못’이니 ‘불’이니, 하는 말씀은 하나의 비유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죄과(罪過)의 내용에 따라 같은 불못이라도 실제로는 고통의 강도(強度)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 자체에 대해서는 일률적(一律的)으로 어떻다고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하여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죄수들이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일단 선고가 내려져 형이 확정되면 그때 비로소 교도소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죄상에 따라 몇 달을 사는 사람에서부터 무기 징역, 나아가서는 아주 감옥에서 음부로 직행하는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이들 죄인에게 형의 내용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미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유치장)에서 기다린 죄인들은 심판을 받은 다음에 형이 확정되고, 실제로 느끼는 형벌에 경중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마귀가 발등상 된 후 심판을 거쳐서 비로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베풀어지려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어야 하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세계가 지나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여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군병, 14만 4천이 편성되는 것을 말하며, 이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곧 오늘날 우리의 이 역사입니다.

또한 마귀와 하나님이 6천 년 동안 겨루어 온 것도 요컨대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겨룬다’는 것은 힘이 비등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는 서로 겨루지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겨룹니다. 힘이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미국이 단연 우세하더라도 맞부딪치면 큰 위험부담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작은 앞잡이 나라에 무기를 대어주어 겨루게 합니다. 하나님과 용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겨루지 않고 하나님은 인간을, 용은 짐승을 앞잡이로 내세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월남은 완전히 공산화되었습니다. 자유민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구경만 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 편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며,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하나님과 마귀가 지켜야 하는 룰(규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지성소로,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인간들을 음부로 데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비유를 들어 천국에 대해 윤곽을 암시하셨습니다. 즉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주인은 약속대로 일정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을 많이 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했습니다.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니 그런 불공평할 데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를 열심히 믿어 그 나라에 가기는 마찬가지로이며, 이것은 반드시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모태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믿은 사람이나, 잠시 동안 믿은 사람이나, 구원받기는 매일반입니다. 그리고 때를 잘 타고나면 한결 유리한 조건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도 죄를 온전히 씻을 길이 없어 죽은 후에 바로 주께서 저들을 위해 예비한 약속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히11:13\)](#) 신약 시대에는 주의 피의 대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주님이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은 주님 당대는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주께서 당신의 피로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피 권세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빈손 들고 직접 주님에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피 권세는 성령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감화 감동시켜 오랫동안 역사해 오다가, 오늘날 이긴자가 나타남으로써 전 무후무(前無後無)한 보혜사 성령의 큰 은총이 베풀어져 순교하지 않고도 예비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뜨내기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 역사에 몇 번 참여했다가 세상을 떠나도 그 시체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으로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도 세대에 따라 수고해야 할 여건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마치 품꾼들이 포도밭에 각자 6시와 9시와 11시에 나가 일한 분량은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가야할 ‘현 주소’를 분명히 알고 이 역사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면 주께서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 사망 권세를 무찌르는 길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딪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공통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죽음은 만인의 귀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믿음직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란 또 다른 삶에 이르는 하나의 관문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 13:44) 이 말씀은 초보적인 가르침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남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천국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보물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이걸 적어도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긴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정도에 대해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천국이 세상에 돌도 없는 보화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연히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전자와 후자는 신앙 자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견 당연합니다. 자기만 알고 입을 굳게 다물어야지, 그렇지 않고 남에게 선불리 발설하여 그 말이 밭 주인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밭을 팔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며, 팔더라도 아주 비싼 값을 달라고 할 터이니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비유이지만, 여기에 은혜 받는 비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남에게 자랑하면 다음부터 은혜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이란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차츰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랏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삼하24:10)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전에 나에게 이상 중에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네가 은혜에 대하여 때가 되기까지 입을 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고, 또 그 은혜를 간수하려면 남에게 은혜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전도하거나 믿음의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 간증을 하는 것까지 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간증담은 은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알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막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밭과 자기 집 할 것 없이 전 재산을 몽땅 털어 그 밭을 장만했으니, 그들의 비웃음을 살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그는 그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 밭을 손에 넣지 않았더라면 그 보물을 발견해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 옥체까지 찢겼으니, 우리도 주님께 보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주님은 당신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에게 일종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매이거나 자기 육신을 사리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온 어떤 관원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수에게 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눅18:22)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이 아까워 예수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눅18:25)는 말씀은 이 관원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

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을 몽땅 바치고 이튿날부터 거리에 나가서 동냥하며 살아갈 겁니까? 과거에 더러 그런 폐단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오히려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즉 주님은 영의 것보다 육의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6:24)는 말씀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중요하며, 재물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속담처럼,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기 ‘소유’는 하나의 상징으로, 거기에는 물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사상, 감정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선의(善意)의 자기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 희생이 없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것은 주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자기 제일주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나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시오.” “취직이 되게 해 주시오.” 또는 “병이 낫게 해 주시오.” 하고 저마다 자기 이득을 앞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보다 “주님께 희생하겠으니 힘을 주십시오!”하는 기도를 드러야 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

지 말고, 감당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Chapter 08.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늘의 일과 세상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하나가 지식, 곧 ‘앎’입니다. 세상에서 큰일을 하려면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격언이 나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고, 설교집을 열심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몹시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말인즉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제법 아는 체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 긴가민가했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목수 노릇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시골 청년을, 몇 가지 신기한 일을 했다고 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처음으로 이곳 서울에 오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주님은 더욱 푸대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발달하여 2천 년 전 당시의 사람들보다 따지고 캐는 데는 앞서지만, 순진성이 훨씬 떨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세상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물 위를 걸어 다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앓은뱅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와 비슷한 능력을 행한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큰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지자의 자격으로는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고향 나사렛에 가서 차분히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많은 친지들 앞에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몇 구절을 인용하여, 그것이 당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눅4:16) 그 구절은 이러합니다. “주

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사61:1-2)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귀 밖으로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 전까지도 톱질이나 대패질을 해서 겨우 먹고살던 사람이 웬 설교냐?” 하는 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일단 덮어놓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신네들 보아하니,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대로, 나더러 남의 참견을 하기 전에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보여주기를 바라는구려. 하긴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소.”(눅4:23-24) 아닌 게 아니라, 저들은 모두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신기하게 여겨 구경하러 회당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이적은 행하지 않고, 설교부터 하려 드니 흥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도 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서 마음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목수로만 보는데, 제대로 말밭이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맥을 못 씁니다. 저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 보여도 저들은 하나의 구경거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

사는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적과 기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선 역사에서도 잘 보아 왔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에덴성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아, 보고 들은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생수로 시체가 변하고, 안찰할 때 악령이 쫓겨 나가고, 향취도 맡고, 이슬도 받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역사이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는 재료에 불과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이 땅에 이긴자를 내세워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긴자를 분명히 모르면 이긴자가 제 구실을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별로 혜택이 가지 못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긴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계2:17)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의 입을 통하여 마땅히 새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체계가 서지 않아 이긴자가 뭔지 모른다면,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긴자가 새 말씀을 던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 드렸을 뿐, 새 말씀을 던지지 않았습니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기반이 닦여,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오랫동안의 수고와 긴 시련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의 종들이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나는 하루 속히 내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외치며 은혜를 부어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정지작업(整地作業)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려면 정신무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 총 쏘는 재주가 뛰어나도, 막상 적과 싸울 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궁리나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서지 못하여 조금만 바람이 불어 닥쳐도 마구 흔들린다면, 어떻게 강적 마귀를 소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선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말씀의 체계를 알고, 이진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Chapter 09.

요한과 물세례



믿음은 마치 세계 챔피언이 된 권투 선수와 같습니다. 그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적수를 꺾어 물리친 것처럼,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여러 단계의 시험에 이겨야 합니다. 또 이 권투 선수가 자기 챔피언십을 오래 간수하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간직하려면 끈질긴 노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이 한 번 지면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시험에 한 번 굴복하면 곧 마귀에게 믿음을 내주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간수하기가 어려우며, 놓치기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투의 챔피언에게 도전해 오는 적수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도 도전해 오는 적수(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흔히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이 적수의 존재를 잊어버

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편이 되어 있으므로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도전해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열도와 시험은 정비례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눅18:8)고 한탄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7:21)고 경고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눅13:24)고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믿는 자’란 주님 당시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믿는 자’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목숨을 걸고 거기 합당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서 인용한 주님의 모든 말씀에서 믿음이 결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간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인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즉 그는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 예비자

로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못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는 요한이 처음으로 주기 시작한 것으로,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중에 지시를 받아 실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한 자로서, 일반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그를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마11:9)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으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되자, 물세례는 자연히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눅3:16)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곧 성령 세례의 그림자였습니다.

주님 당시나 사도 시대의 급선무는 주님의 정체를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네와 같은 보통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긴 당시 사람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로 볼 때, 시골 목수 예수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고방식(思考方式)에 변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인’ 또는

‘부인’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의 인정은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큰 모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행1:5)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물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계속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기 전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행8:36)라고 한 말이 이것을 단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세례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이런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의 난센스(무의미)라고 하겠습니다.

Chapter 10.

그릇을 준비하라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나는 주의 지시에 의해 단
에 서기까지, 은혜 받기 위해 무척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혈
기 한 번 부러도 은혜가 떠나가 냉랭하므로, 그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간신히 은혜를 연결 받았다가
실수하여 다시 놓치고는, 또 매달려 겨우 붙잡고 하는, 은혜의 불
연속(不連續)이 되풀이되기를 2년, 그 후부터는 향취를 맡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이 향취 역시 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
곤 하여, 다시 매달리면 이번에는 생수가 옵니다. 다음에 향취를
받고는 또 놓치고, 이러기를 한두 해 하니까 이슬의 은혜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도 역시 불연속을 이루어, 놓쳤다가
는 연결되고, 연결되었다가는 놓치고 하다가, 다음 단계에 가니 비

로소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늘에서 지켜 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무진 고생 끝에 마침내 여러분에게 물 붓듯 부어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다음에 이 손길을 통해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나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은혜 받기가 한결 쉽고, 쏟은 후 회복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어주는 은혜의 파이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극에서 극을 달리게 됩니다. 즉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힘쓰지만, 일단 은혜줄에서 떨어져 세상에 흐르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구태여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런 폐단이 생길까요?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으려면 우선 그릇부터 깨끗이 씻습니다. 만일 때 묻은 그릇이나 허드렛물에 행균 정도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구미를 잃게 됩니다.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거의 다 전에 큰 은혜를 받고 기뻐 뿜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은혜가 떠나면 그 빈자리에는 일곱 마귀가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마12:45) 무턱대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은혜만 받아 놓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주의 피를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까?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부터가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사43:7)**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 중심의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동기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 갚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은혜는 빛입니다. 세상에는 ‘빛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야말로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뭣도 모르고 좋아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 세 사람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장사를 하라고 일러놓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가 오랜 후에 돌아와 보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동안에 5달란트를 더 벌여 주인에게 내놓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벌여 주인에게 내놓았는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냥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그

를 책망하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일렀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로 들고 있는데, 이 비유야말로 ‘은혜 받은 죄인’이 취할 바 태도에 대해 잘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주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창과 속에 젖어 기뻐하며 금반지 금비녀 할 것 없이 다 바치고 법석을 떨었으나, 오늘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보다 실망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말씀으로서 있지 못하여 덮어놓고 좋아하다가 은혜줄이 끊기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장본인은 한동안 감격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만한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혼자 좋아서 기뻐만 하는 것은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돈을 땅에 묻었다고스란히 그대로 내놓았을 때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그렇습니다. 잃었던 에덴동산을 회복하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것이지, 인간을 위해 떡과 고기를 먹여 주고 병이나 고쳐주라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요4:24)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이고, 진정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늘과 땅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긴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긴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이긴자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늘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면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민20:10-12 참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활동 무대를 스블론이나 납달리 지방으로 정하고 가난한 농부나 어부를 상대로 하늘의 도를 전하게 한 것처럼, 이긴자의 양떼도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입니다. 돈 많고 권세 있어 뚱뚱거리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오묘한 진리가 먹혀 들지 않는다는 것을 하늘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돈 많고 세도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는 일부러 패가망신을 시켜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큰 불행 같지만, 실은 하늘의 큰 축복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마19:24)고 말씀하였겠습니까? 그만큼 돈이나

권력은 신앙에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들도 12 보좌에 앉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마19:28) 이것은 그만한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말을 천사가 변경해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갈1:8) 그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긴자는 양떼들에게 구원을 보장합니다. 하늘에서 그만한 재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양떼들을 말씀으로 다듬어 각자 그릇을 마련하게 하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그릇이 마련된 사람에게 은혜를 본격적으로 부어주는 때가 옵니다. 말씀에 서기까지는 어렵지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은 쉽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역사입니다.

Chapter 11.

승자와 패자



주님의 말씀을 상세히 검토하고 종합해 보면, 구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마7:21, 10:38, 눅13:24 참조) 그것은 요컨대 믿음에 행위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도 남는 일이지만, 여기 저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귀의 신, 즉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마귀의 편에 서느냐 하는 마당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대신 마귀의 신이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마5:44) 이것은 사랑의 극치(極致)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하늘의 도에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인간적(超人間的)인 능력, 즉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였습니다. 만일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참지 않고, 천군 천사를 풀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모조리 처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한 큰 본보기라고 하겠습니까.

이 주의 사랑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는 사울(바울) 일당의 돌팔매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60)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나중에 주의 품에 돌아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13:10)라고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한 말씀이 지닌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요일3:15) 사랑은 큰 무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에게 패배를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주 앞에

설 생각을 마십시오. 그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라집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요컨대, 이 사랑의 계명에 저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마귀를 사랑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 땅에서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무참히 사그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영도자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주의 피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서서히 은혜를 거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갑자기 거두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서히 손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의로운 하늘 군대를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만 되풀이하게 되면 그 종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사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으며, 바울은 할례를 폐지시키는 사명을 맡았습

니다. 전자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후자는 소임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사명을 맡으면 어떤 애로가 있더라도 이를 기어코 이루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죽음을 앞에 놓고 한때나마 망설였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눅22:43) 주님에게는 십자가를 지시는 수난에 비하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건 말건,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건 한두 사람이건, 그것은 다 지엽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막 12:33)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내밀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지기 때문입니다.

Chapter 12.

오늘의 예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하늘에서 말씀의 존재로 계시다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잠깐 육을 입고 세상에 다녀갔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은 하나하나, 몇백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되어 있었으며, 주님은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무엇보다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인간인 동시에 신이요, 신인 동시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이중성(二重性)이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그르치게도 하고 또 혼돈하게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폐단은 주님을 한갓 자연인(自然人)으로 보는 불신자는 물론이고, 주님을 섬기고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이니이다.”(마11:25-26) 이것은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 배우고 똑똑하다는 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순진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선입견(先入見)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을 입고 33년 동안 땅에 계셨으므로, 그 행적을 보아 주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4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기 전이요,(요7:39) 따라서 주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대하여 말씀도 듣고 악수도 하고 식사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 아닙니다. 즉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경륜을 기록한 것이 다름 아닌 계시록입니다. 여기 기록된 영광된 주님은 모습부터가 땅에 계실 때의 주님과 전혀 다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朱錫)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1:13-17)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시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권능의 위력이 땅에 계시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특별한 은혜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며, 따라서 말씀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 말씀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고 들려주어 계시록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이긴자에게 ‘흰 돌’을 주어 새로운 말씀을 터뜨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계2:17) 이것은 물론 계시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며, 이런 계시를 받은 신령한 자는 바울의 말대로 타인을 판단할 수 있으나, 타인의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고전2:15)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문제일 뿐, 다른 것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善)이란 무엇입니까? 선은 땅에서 솟아나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선은 인간이 머릿속에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새까만 죄인에게는 진정한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에게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는 곳에 선이 깃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주님을 위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의 순교자들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주

님은 2천 년 전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떨기
세덱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입니다.

Part 02.

빛을 찾아서



13. 언약과 섭리 · 14. 계시록의 7복

Chapter 13.

언약과 섭리



1) 선지자와 언약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인간이 없으면 명색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명색뿐인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백성들을 내세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인간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가는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상에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허망하고 따분한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 자체가 보람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 6천 년 전부터 사람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살던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당시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주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내세워 인간들과 교류할 때 언약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언약이 성립되면 피차 지켜야 합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기 위해 모세가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출3:7-8)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며, 모세 역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긴밀한 사이였던가를 다음과 같은 모세의 기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민11:11-12)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불평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투덜대자, 하나님께 이처럼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움직이는 모세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여느 백성이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을 받아들여 메추라기 고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면서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모세와의 언약을 파기하여 모세와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천사만 보내겠다고 하셨으며,(출32:34) 끝내는 모세의 불찰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창28:14-15) 즉 야곱 당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세레 요한 때까지의 430년 동안은 하나님께

서 하늘문을 닫은 암흑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따로 떨어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과 맺은 여러 가지 언약에 의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여간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종은 언제나 언약 가운데 움직이게 되며, 아무리 작은 선지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히5:8-10 참조) 이긴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즉 주님과 이긴자 사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언약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이 단상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그 언약된 섭리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섭리 가운데 접어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시대의 바울이나 베드로와의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받는 은혜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이 베풀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들과 맺은 언약은 당신의 위신을 위해서도 굳게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한 실례를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다윗과 교체될 정도로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 썩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삼상15:11)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사울을 곧 갈아치우면 그만일 텐데...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기름을 부어 들어 쓰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언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스스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헌신짝같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언약대로 40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앉혀 두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5:8-10) 즉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끝까지 그 쓴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 승리하지 못했다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5:1-7)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쥔 책은 무슨 책일까요? 그것은 생명책이며, 거기에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14만 4천)가 차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래야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시려는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생명책을 인수하기 전에는 그 생명책에 오를 의로운 자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직접 기록했습니다.(말3:16)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5:5) 승리하신 다윗의 뿌리는 주님이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겼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그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 떼시게 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 주께서 생명책에 오를 명단도 기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계21:2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보고에 의해 생명책에 그 명단을 기록하셨지만, 주께서는 이른바 ‘일곱 눈’, 곧 성령의 감찰에 따라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속3:9) 이 일곱 눈을 가진 돌이 곧 주님입니다.(계5:6) 요컨대 주께서 성령에 의해 의로운 자의 명단을 채우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지,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

다. 주님 자신이 진리입니다.(요14:6) 철학자가 머리로 짜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진리 비슷한 것이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칸트와 같은 철학자의 학설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고는 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봉하고 따를 만한 것은 못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신령한 데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리를 하늘에서 구하지 않고, 땅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목회자가 대학을 나왔느냐, 미국 유학을 했느냐,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 그 자격을 따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2:17) 이긴자에게 주는 이 흰 돌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이 말씀은 요컨대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속3:9) 하는 말씀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께서 이긴자를 당신의 보좌에 앉히겠다는 말씀에 그대로 이어 집니다.(계3:21) 나는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3) 이사야와 아모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대 선지자로,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당대에 될 예언도 했으

나, 수백 년 후에 있을 주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오심과,(40:3-5) 주님의 동정녀 탄생,(7:14) 주님의 수난(53:3 이하) 등을 예언하여 인류에게 큰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다운 예언은 이사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도 주님에 관한 예언을 조금씩 곁들였지만, 모두가 단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무릇 예언에는 곧 이루어질 것도 있고, 주님에 대한 예언처럼 수백 년 후에 비로소 성취될 것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몇 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 예컨대 신천지 창조(사65:17)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예언 중에서 먼 장래에 될 것은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불원에 이루어질 일, 가령 이사야가 앗수르의 유다 침입을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사8:7-8) 이사야 생존 시에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듣는 사람들은 좀처럼 곧이들리지 않는 것이 예언이 지닌 생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가 일쑤이며, 심한 경우에는 미치광이라는 욕도 먹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가 마음대로 적당히 꾸며낸 말이며, 결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신18:2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언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사 48:11)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언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의 견해요,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인간은 이 정도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사55: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흔히 자기의 작은 자(尺)로 하나님의 일을 재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신 의도부터가 당신께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사43:7) 여기서 주객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여 생각하는 데서 오는 폐단은 예상 외로 큰 것입니다.

아모스는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남, 북조로 갈라진 후 북왕국이 전성시대를 이룬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북왕국은 이웃 나라들과 무역을 하여 매우 부강해졌으며, 수도 사마리아는 크게 흥청대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 그대로, 북왕국은 이 돈 때문에 날로 부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보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켄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며, …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암2:6-8) 등등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도 합니다.

아모스는 이런 달갑지 않은 소식부터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
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영광스
러운 일이지만, 사명 자체는 반가울 리가 만무합니다. 아니 선지자
도 인간이므로 언짢은 소식을 전하거나 어려운 사명을 받게 되면
엄두가 나지 않아, 될 수만 있으면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상
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
을 치신다는 경고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망쳐 버렸으며, 모세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하나
님의 지시를 받고 자기는 언변이 없어 못하겠다고 일단 사양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런 방정맞은
(?) 소리를 한다는 것은 매 맞아 죽기에 알맞은 일이며, 모세가 이
방인의 나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
야말로 목숨을 거는 일대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설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누가 선뜻 나서서 “네!” 하고 고분고
분 순종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들이 머뭇거리는 것도 무리가 아
닙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거역하
면 신상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들
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암3:1)고 서두

를 꺼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 여차저차 하시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예언)를 전하였습니다.

한번은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모스에게, 메뚜기가 이스라엘의 들에 새로 돌아나는 풀을 모조리 먹어 치우는 광경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다 쓸어버리면 어찌하오리까? 원하옵건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암7:2) 하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잠자코 있겠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온통 살라버리는 광경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었습니다.(암7:4) 그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또 먼저와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간곡히 타일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모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상 중에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계셨습니다.(암7:7) 세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을 아주 멸하시기에 앞서 백성들의 동태를 측량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암7:8) 이 무렵에 아모스에게는 핏박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벨엘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자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에게, 아모스라는 자가 순진한 백성들을 꼬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큰 걱정이라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벨엘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예언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으레 이런 쓴 뿌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새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역사를 손가락질하며 훼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자고 그렇게 끈덕지게 가로막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직 긴가민가한 분이 있습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 입을 통해 나간 말씀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님의 언약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지만, 주님 생전에는 이들의 움직임이 어디까지나 육적이고 타산적이며 또 자기중심적인 세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에 치중해서 믿음을 키워 나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은혜의 체험에 치중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지적이고, 후자는 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이론상으로는 납득이 가지만 실감이 나지 않는 반면에, 후자는 이론은 어쨌든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론과 체험을 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보다도 체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던들 기독교는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신앙 체험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고 하니, 마귀도 이런 흥내를 내어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이비 종교를 비롯한 온갖 거짓 것들이 판을 치는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의주도하신 주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마7:20)고 우리에게 미리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치는 척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마련이고, 악령을 받으면 마음이 고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먹고 자랐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야 들어간다.”(마7:21)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학문도 깊이 들어갈수록 어렵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의 피 값으로 거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탈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요3:3)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 즉 중생이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령을 받아,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입술로만 주를 부르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쟁이가 더 고약하다는 욕을 먹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노라고 하면서 죄는 죄대로 지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죄 많은 목숨을 주의 정결한 목숨과 바꾸는 큰 사업입니다. 믿음은 위안의 수단이 아닙니다. 위안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하게 살려는 수도의 방편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도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것이 주의 보혈이지만, 인간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예언 그대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 육을 입고 오셨으며, 생전에 몸소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언들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마무리 짓는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과정에 대해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신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기록한 계시록은 난해하여 신학자들도 감히 제대로 해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적지 않은 물의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재림하는 연대와 날짜를 푼답시고 아무 해 무슨 달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예언을 하여 사람들을 현혹케 하다가, 그 날짜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지만 여차저차해서 연기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께서 오시려면 일정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하여 새벽이슬 같은 주의 군병이 마련되는 것으로, [\(시110:1, 3\)](#) 땅에서 이것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님 생시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하여 물었을 때, 주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인 줄 알라.” [\(마24:15\)](#) 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을까요? 당시 환경과 부합되지 않아 이해하

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주님의 초림도 시대적인 배경과 맞아야 했습니다. 가령 이사야는 주님이 “만인의 죄악으로 인하여 찢림을 받는다.”(사53:5)고 예언했으므로, 주님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극형에 처하는 사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야 하며, 스가랴는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슥9:9)고 예언하였으므로 나귀를 타고 다니는 환경에서 태어나야 예언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종, 즉 예언적인 인물은 으레 시대적인 배경을 업고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분신으로 온 주의 길 예비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얼마 전에 태어나야 예언과 부합됩니다. 만일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시대와 장소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길 예비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의 분신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니오.”하고 부인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요1:21)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모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마17:12) 요컨대 세례 요한이 진짜라야 주님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마지막 종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4대 강국이 형성될 때에 나타난다고 말한 것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인 배경이 현실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주님 당시의 일을 오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늘에 해당되는 일을 구약 시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선지자들이 당신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당신이 그 주인공임을 언명했습니다. 성경은 당사자가 아니면 봐도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어느 한둘만 가지고서는 주님의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하나하나의 예언을 모아 짝을 맞추어 볼 때,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공이 나타나서 뚜껑을 열어야 청사진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 방언과 예언

다음은 사도 시대의 예언을 방언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시대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언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즉 전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예언이 나갔으므로 소식통이 한정되었는데, 사도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없이 예언을 하여 혼잡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사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

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하여 받은 바 은혜가 다른 것은 성령을 받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받는 사람의 성격이나 믿음, 열성,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 담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똑배기만 한 그릇이면 똑배기만 한 은혜가, 항아리만 한 그릇이면 항아리만 한 은혜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언의 은사가 사람에게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방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사도 시대에 말이 다른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방언을 맨 처음에 한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방언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방의 말을 하자 그곳에 모여 있던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놀랐던 것입니다.(행2:4, 6, 11)

그런데 방언을 한 사람은 베드로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문도가 다 방언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행2:4) 그런데 같은 이방의 언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통역해주어야 했습니다. 즉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분의 말은 이러저러한 뜻입니다.” 하고 풀이해 들려주면 그제야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성령을 웬만큼 받은 사람의 방언은 통역이 되지만, 성령을 쥐꼬리만큼 받아 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방언은 통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여 저마다 방

언을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방언이란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방언 자체에 관심을 쏟다보니 나중에는 성령은 받지도 않고 방언만 하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방언이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인기를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영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방언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중이떠중이가 방언을 한답시고 설치는 바람에 제대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혀 하나님 자신에게도 욕이 돌아갈 때 하늘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주신 은혜를 도로 거둬들이게 됩니다. 그 사역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언을 폐지시켰습니다. 성경에 방언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한편 방언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더러 비친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고전 14:22)이니,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하라.”(고전14:39-40)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시라고 해서 선불리 말했다가는 된서리를 맞기가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뭔데 폐지시키

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치듯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천 년 동안 주로 바울의 신학에 의존하여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만 받아 왔습니다. 바울을 능가하는 큰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결코 무작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려, 이긴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광경을 보여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이긴자가 나타나면 성경의 비밀이 밝혀지고, 새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는 온전한 새 역사에 흡수되게 마련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전13:10)는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비단 여러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온 세계 40억 못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말한 두 증인 중에서 앞선 사람은 부분적으로 전하고, 나중 사람은 온전한 것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단12:6, 계2:17 참조) 그러나 우리 앞에는 물론 부셔야 할 여리고성도 있고, 건너야 할 요단강도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감히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 이긴자에 대한 언약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 대해서 한 예 언들은 주님의 초림 당시에 거의 다 이루어지고, 남은 것은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지시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이긴자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될 일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 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11:1-2)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강해에서도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세 번째 전쟁 때의 일로, 거기 나오는 ‘성전’, ‘제단’, ‘측량’, ‘마흔 두 달’ 등등의 낱말들은 모두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전 밖을 이방인에게 주어 마흔 두 달 동안이나 짓밟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큰 비밀입니다.

세상에서도 적과 싸울 때 소위 ‘작전상의 후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전 밖을 내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전법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두 번째 싸움에서 마귀의 중요한 무기 노릇을

하던 ‘음녀’를 물리치고 천년왕국을 이룩했다고 해서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소탕된 것이 아니며, 아직 ‘용’과 ‘짐승’ 등 강력한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즉 용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계12:4) 셋째 전쟁에 내세우려고 작전을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쳐부수는 싸움을 주님과 하늘 군대가 맡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짐승의 무리를 쓸어버린 다음에, 그 우두머리인 용을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장을 잡으려면 졸병부터 먼저 쳐부셔야 하는 세상 전법의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주는 성전 밖의 마당은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한 싸움터입니다. 이때 마귀는 1,260일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며, 주의 두 증인인 감람나무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일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계11:3-4) 즉 앞으로 마귀와 마지막 일대 접전(아마겟돈 전쟁)을 벌릴 때의 작전 내용을 천군에게 미리 지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주신 작전지시, 곧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며, 디모데가 슬기롭게 움직인 것은, “디모데야 내가 네게 경계로써 명하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딤후1:18)는 바울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긴자는 총사령관의 위치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한 작전을 짜고, 이를 하늘 군병들에게 전달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계2:26)란 결국 이 총사

령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요컨대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한 작전지시입니다. 한편 마귀도 물론 면밀하게 작전을 짜고 덤벼듭니다. 싸움이란 피차에 이길 자신이 생길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대 때려 상대방을 녹다 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력이 월등히 딸리면 싸움을 단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와 1대1로 겨루면 물론 하나님이 우세하지만, 인간을 사이에 두고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불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백 번 잘 하다가 한번 죄를 지어도 곧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의를 행하기보다 죄짓기가 백 배나 쉽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의 군대가 편성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병의 자격을 갖춘 순교자를 귀히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려면 14만 4천의 군대, 곧 의의 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계6:11)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는 각각 사명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하여 많은 백성들을 그 그늘에 모이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 세

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하늘의 지시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 따르게 해야 하지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치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다듬고 은혜를 부어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1,260일 동안 짓밟는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은 천년왕국 이후 하나님과 마귀가 셋째 싸움을 시작하기 바로 전의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의 ‘천 년’도 영의 세계라 우리의 시간관념과 다릅니다. 즉 그것은 영원한 세계와 우리가 현재 육을 입고 사는 세계의 중간 기간으로, 잠깐 동안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했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계가 지나가고, 무저갱에 가둔 마귀를 풀어놓아 거룩한 성을 짓밟게 하는 동안을 참고 견디려면 순교도 무릅쓰는 신앙인이어야 하며, 따라서 설사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더라도 고된 연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될 수가 있어도, 군대는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죽으면 음부에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의 환난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Chapter 14.

계시록의 7복



기독교는 지난 2천 년 동안 양적으로는 상당히 팽창했으나, 질적으로는 별로 발전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거의 무지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믿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내 말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뭘 데 건방지게...” 그러나 이것은 건방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가 사실이냐? 나는 이에 대해 5년째 외쳐 왔습니다.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나, 내 설교집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내 말이 납득이 갈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상세히 받은 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신학자의 견해나 자기 나름의 속짐작으로 양떼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으며, 양떼들은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여느 책과 달라서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워 연구한다고 해서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숫제 덮어놓거나, 억지로 풀다가 본의 아닌 거짓 말을 하는 폐단이 생기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은 아무 때나 또 아무나 뚜껑을 열 수 없도록 봉해 놓았으니 말입니다.(단12:9, 계2:17 참조) 모두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되는 일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가지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신 유명한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복과 비교해 보십시오. 계시록의 일곱 가지 복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말씀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가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계1:3) ② 주 안에서 죽는 자,(계14:3) ③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계16:15) ④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계19:9) 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계20:5) ⑥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계22:7) 그리고 ⑦ 자기의 때 묻은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계22:14)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자들

계시록에 보면, 거기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란 요컨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으로, 비유와 상징과 암시가 태반이라 아무나 읽어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때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에 대해 이상 중에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두 증인 중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 내용을 듣고도 알 수 없어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 두라.”(단12:9)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주의 두 증인, 곧 이긴자 중의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밝히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신령하고 오묘하므로 알아듣고 지키려면 우선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귀는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계2:7) 한 귀를 가리키며,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

므로 세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잘 이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세상 지식이 오히려 성경을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2)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계 14:13)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안’이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를 지키는 가운데 주를 위함 베풀음을 당한 순교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야 복이 있을 텐데, 왜 죽어야 복이 있다고 하는가? 위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주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살려고 믿는 거지, 죽으려고 믿는단 말 일까요?

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계14:1) 시온 산에 계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늘의 군대가 둘러싼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들 하늘 군대의 이마에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이 함께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배출된 하늘

군병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고, 신약 시대에 나온 하늘 군병의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기록하여 주님을 먼저 가져온 것은 신약 시대에 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반열에 선 사람들이 서열상 앞서기 때문입니다.(계20:4 참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 군병의 이마에 천사를 시켜 당신의 이름을 새기게 하고, 신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한을 이어받아 역사하게 되므로 그 하늘 군병의 이마에는 천사를 시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인을 친다.”(계7:3)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새겨지는 이름은 달라도, 인을 치는 천사는 같습니다. 따라서 하늘 군대의 수가 차고 덜 찬 것은 이 인 치는 천사가 제일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인침을 받으려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되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하늘의 이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마에 받은 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라는 표시입니다. 마귀도 자기편에서 움직이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계13:17)

그런데 왜 순교해야만 인을 쳐주는가? 인을 치는 것 자체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 있을 때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 육 아울러 연약하므로 잘 믿는다고 해서 인을 쳤다가 나중에 죄를 지어 마귀의 밥이 되면 괜히 헛수

고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충성해도 죽는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원망을 한다면 즉시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순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주님을 위해 목베임을 당하여도 공포를 느끼거나 불평을 하면 마귀가 사로잡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순교자는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와 하늘에서 인정하는 순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베임을 당하거나 사자 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순교자라면 벌써 하늘 군대 14만 4천은 차고도 남아 하늘나라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아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늘에서 신증을 기합니다.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게 한 연후에 틀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 즉 은혜를 받아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80% 이루어진 자에게 인을 치면, 나머지 20%는 죄에 떨어질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접어들어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하늘 군대의 수를 채우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또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머리칼 하나도 다치지 않는 사회에서는 순교를 하려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교가 아무리 귀해도 성도에게 박해를 가하지 않는 시대에는 하늘에서도 순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어, 하늘에서 스테반의 죽음을 격려할망정, 벼락이라도 내려 그 목숨을 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자기에게 유리한 줄 알았지만,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늘에서 인을 한번 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충성케 하여 끝내는 죽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기록된 대표적인 일곱 교회에서 순교를 많이 하여 이런 인 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즉 당시에 많은 신도들을 톱으로 잘라 죽이거나 사자에게 던져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성도가 무서워 도망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을 칠 수 없게 됩니다. 왜? 죽음이 무서워 도망치는 군대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순교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순교란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최대 목표가 바로 이 순교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그 동역자인 성도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변을 당하여 기꺼이 죽어 갔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 드린 시대가 바로 사도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잡아 죽이는 시대이므로 순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가 허용된 시대에는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라면 모를까, 적어도 자유 진영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으며, 잡아 죽이는 일은 더구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는 하늘의 군대를 한 사람도 배출시킬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늘에서 예비한 이긴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즉 이긴자를 내세워 그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설 수 있

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한 주님의 언약이며, 이긴자는 일곱 가지 특권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산 증인이 되어 주실 줄 압니다.

이 에덴성회는 여러분을 구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군병을 기르는 훈련소입니다. 이 군병은 영의 마지막 싸움터(아마겟돈)에 나가 싸우지만, 구원이나 겨우 얻는 신도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뿐,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훈련이 필요 없지만, 군병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 훈련은 바로 주님의 충성과 인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음을 다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련과 연단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강적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나누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던 대 선지자 모세는 자기 앞에서 술객이 버젓이 흉내를 내어도 속수무책이었지만, 바올이나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 주고 마귀, 곧 악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피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요10:8)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구약 시대의 성령은 마귀 앞에서 맥을 쓰지 못하니, 순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도 불의 성령만 받아 가지고서는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없었으므로, 순교해야만 하늘나라 군대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마지막 때에 이긴자를 통하여 내리는 성령의 능력은 불의 한 증거의 성령보다 몇 갑절 위력이 있어 순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불과 생수와 이슬 — 이 세 증거의 성령이 그것이며,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께서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20:1 이하)** 즉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점심때부터 일한 사람과 또 오후부터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먼저 일한 자가 항의를 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꼭두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어째서 점심때가 다 되어 일을 시작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줍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뜻이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순교자는 제일 많이 애를 쓰고, 신약 시대 불의 성령을 받은 순교자는 그 다음으로 애를 쓰고, 마지막 때 이긴자를 통해서 내리는 세 증거의 성령을 받아 순교하지 않고도 순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은 성도는 제일 적게 애쓴 것입니다. 애를 많이 쓴 것은 결국 때를 잘 타고나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는 일에 항의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기능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고, 같은 신약 시대에도 한 증거의 성령이 내리는 시대와, 세 증거의 성령이 내리는 시대가 다릅니다.

오늘날 순교하지 않고 하늘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 그런 은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눈 녹듯 녹아 나가고, 굳어진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이 마지막 역사는 여호와와의 감춰진 비밀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슌 4:6) 이 역사는 또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저물어갈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슌14:7) 환한 대낮이면 다른 새 역사도 필요 없고, 캄캄한 밤이면 다시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라 ‘이한 낮을 든’(계14:14) 이긴자가 알곡을 거두기 위해 역사하는 때입니다. 씨를 부릴 때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무에게나 물 붓듯 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알곡이 익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듬고 성령으로 씻어 세우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따라만 오십시오. 여러분은 다 십자가 군병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역사를 시작한 후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0년은 더 늙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나 하나를 꺾으려고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면서 기필코 이 역사를 이뤄놓고야 말 것입니다.

3)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셋째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계16:15)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물론 영적인 의미로 쓰여 있으며, “옷을 지키라.”는 말씀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간수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면 곧 빨아 은혜를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치가 드러나 주의 빛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예복으로, 바울은 ‘빛의 갑옷’(롬13:12) 또는 ‘전신 갑주’(엡6:1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인간과 만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땅에 강림하기도 하십니다. 소돔 성문에서 롯은 두 천사를 맞아들였으며,(창19:1)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높다란 대를 쌓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 친히 강림하셨습니다.(창11:5)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도 있습니다.(출19:18)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는 둘째 하늘, 곧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마귀, 인간과 마귀 사이는 직통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간접적으로 인간과 접촉하시며, 여호와께서 직접 보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세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힘든 반면에, 마귀와 가까워지기 쉬운 것은 바로 앞에서 내가 말한 그런 거리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마귀를 쫓는 노력 없이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의 찬란한 빛은 주를 맞이한 예복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영광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맘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 군병의 수가 차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시고, 한 사람이라도 모자라면 이 지구는 영원히 태양의 돌레를 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짜를 어느 해 아무 날이라는 식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유가 있어서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멸할 때에도(계6:11)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뚜렷이 설 때,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주님이 오실 만한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주님은 당연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건이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주의 아내들의 일정한 수가 차는 것입니다. 이때를 고비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목적은 요컨대 이 예복, 곧 빛나는 세마포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4)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자들

넷째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계 19:9)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물론 주님과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남녀가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해서 무춘, 즉 촌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랑과 혼인하는 것도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의 인격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먼저 이 혼인잔치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 남자가 신부를 맞이할 때에는 가문, 성품, 용모, 인격, 재산, 학력, 체력 할 것 없이 세밀히 따진 끝에 이만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고락을 함께 나눌 만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한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영적인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주님이므로 문제는 우리 신부 측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내감을 고를 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이 이 아내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이룩하려면 14만 4천의 주의 아내, 곧 하늘 군대가 마귀를 온전히 소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세 당시부터 하나님에게 대적해 온 큰 적수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믿음으로는 마귀와 대결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래서 주님은 목숨을 내걸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아내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숨을 내건 이상의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귀히 보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주님과 혼인 잔치에 아내 되는 자격자로서가 아니라, 축하해줄 손님으로 ‘칭함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혼인 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마22:14)고 말하여,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비유를 들어 임금이 아들을 위해 모처럼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으나,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에 바쁘다는 구실로, 그 밖의 사람들도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 않으므로, 하는 수 없이 종을 시켜 한길에 나가 오가는 사람을 마구 불러들였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차저차해서’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와 현재 지상에서 배출하는 하늘 군대의 수를 더하여 정해진 수가 차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승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계21:1-2) 왜 성을 하필 신부로 비유했을까요? 거기에는 성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곧 하늘 군대의 수가 차야만 비로소 이 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성의 됴됨이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은 온통 진귀한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비유로 찬란한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은 하나의 울타리를 가리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주님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계21:22 참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성안의 죄인을 사하고 멸하지 않겠다(렘5:1)고 하신 것은 의인이 당신에게 이처럼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볼 때에는 대단할 것 없는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에는 무척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는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은 당신의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서 좁쌀알만 한 지구에 달라붙어 복잡거리는 인간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지으신 방법부터가 다르며, 당신에게 요긴한 재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신이 같이하면 여간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자와 후자의 사이는 실로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신부와 초청객과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초청객이 복이 있다면 신부는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5)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계시록에는 다섯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복은 권세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성경에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심판할 권세와 제사장이 될 권세 및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될 권세가 그것입니다.(계20:4-6)

이 부활은 제한된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날을 얼마 앞두고 비로소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주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마26:32)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뵈러 갈릴리로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척척 고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지만, 주님의 크신 사명은 산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혼은 지성소가 아니면 음부로 가게 마

련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요컨대 육이 죽어서 혼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을 거쳐 영원히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천국과 지옥은 이때 비로소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천당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다니, 이런 불공평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럴 듯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적이 있기 때문에 피차의 규례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인생을 통찰하고 마귀의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천당과 지옥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밀받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 체험입니다. 이 신앙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활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즉 주님의 피 권세로 우리에게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이 큰 인물들도 주의 피가 아니면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피를 흘리고 운명하시자 그 영이 무덤에서 뛰어나와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마27:53 참조) 부활은 이와 같이 영이 사는 것이며, 육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수를 유업으로 주어,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시는데,(계21:6) 이기는 것도 주의 피 권세요, 물을 피되게 하여 생수를 만드는 것도 주의 피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귀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까지도 마귀가 흉내 낼 수 있다면 십자가의 권능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는 도덕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들이 주님께 마귀를 처단하여 피 값을 갚아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계6:10) 이때 주님은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의로운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타일렀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주의 아내가 입을 예복, 곧 흰 세마포 옷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땅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는 여건, 즉 주의 피 권세로 말미암은 생수가 임하지 않은 시대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거룩한 성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히11:13) 순교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 이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흰 두루마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부름을 받고 땅에서 이미 세마포를 입게 된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새삼스럽게 흰 두루마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부에 갇혀 있는 혼들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소탕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주께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지성소에 가게 마련인 순교자 및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입니다.(계6:8) 이들은 천년세계가 지나 심판 때 부활을 하게 되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될 자들도 일단 음부에 가두는 것은 천년세계 이후의 환난 때 마귀의 밥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짐승에게 경배한다.”(계13:12)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저갱은 문자 그대로 끝없는 어둠의 세계요, 마귀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계시록에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계20:1-3)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열쇠’나 ‘쇠사슬’이니 하는 말들은 상징적인 표현이며, 용을 비롯한 모든 마귀의 무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에워싸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에 접근하기만 하면 마귀는 눈 녹듯 사라지므로 얼씬도 못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강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여 능력이 약하면 마귀가 뛰쳐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차단하려면 하늘 군

대의 수가 차서 천년세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 후에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면 하늘의 군병들은 마지막 싸움,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요, ‘진’입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설 때’ 다시 말해서 마귀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마귀를 소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칙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어도 혼은 영원한 복락이 아니면,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말은 하나의 상대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긴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계2:11)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란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 구렁텅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어서 음부에 끌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서 주를 맞을 때까지 주의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첫째 사망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모태에서 죽었건 100세의 장수를 누렸건 간에 육의 장막은 조만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은 이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은 썩고 혼은 주의 영과 결합되어 부활체가 형성됩니다.

알기 쉽게 숫자적으로 풀이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를 믿어 그 혼이 생전에 70%만큼 깨끗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30%의 더러운 혼은 주의 것으로 대치됩니다. 그리하여 부활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마귀의 편에서 움직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의 피가 주의 피처럼 맑아지고, 핏속에 있는 혼이 100%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의 피와 합쳐서 100%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상에 따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즉 같은 지옥이라도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마16:27)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옥에도 서열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역대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제일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종은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취한 적이 없으며, 그가 자기 것으로 소유한 것은 오직 목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물질이나 이성 문제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가 출발은 화려했으나 끝이 신통치 않았습니니다. 그 예의 하나로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요, 주의 길 예비자로서 처음에는 일을 썩 잘 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쇠해도 그는 흥해야 한다.”고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주님을 의심

한 연고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의 공로는 결국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합니다.

셋째, 부득이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넷째, 어떤 경우에도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이 있으면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명심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여섯째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계22:7)의 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다른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없다는 걸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 중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자상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주님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은 모두가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2천 년 전,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예루살렘 등지에서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농부, 어부, 장사꾼을 상대로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나타나 설교를 하신다면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시고 보혜사 성령에게 미루신 것은(요16:12)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 수준이 낮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제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주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못하신 말씀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히2:9)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주님을 무작정 신격화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신의 존재로 계시다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조금도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손님으로 오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에 힘입어 역사한 바울의 경우를 보면 주님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승천하여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지시에 따라 역사했으므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갈1:8)고 했으며,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3)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천사보다 우위에 있음을 언명한 것으로, 지당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치는 제자와 추종자들을 상대로 설교하였지만, 바울은 주님을 어느 정도 아는 청중을 상대로 설교했으니 그 내용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듣는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춰서 나가게 마련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중학생 수준의 글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계시록의 말씀이 제일 깊이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상에 계신 주님만큼 심한 구속을 받은 경우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줄곧 매어 살았습니다. 설교도 맘대로 못하고 모든 일거일동을 예언에 따라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깊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해도 주님은 당신의 한계 밖의 것은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

냐?”(요21:15)고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베드로에게서 다짐을 받고 나서 양을 먹일 것을 부탁했습니다. 즉 주님 대신 목자의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순교 당할 것도 아울러 예고했습니다.(요21:18) 이때 베드로는 꽤 당황하고 또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고 싶어 하던 베드로에게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터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말이냐? 그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겠다.”

베드로는 무척 섭섭했습니다. 수제자인 자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고, 요한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덧붙여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런 일에 상관 말고 내 말대로 하여라.”

그래도 베드로는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자기만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비한 큰 일꾼으로서 사도 요한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에 주력하고, 사도 요한은 다시 올 당신을 맞아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예언자의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당신이 다시 오시는 절차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습니다. 즉 “내가 너희들

에게 다시 속히 가려고 하지만, 그냥은 못 간다. 이긴자가 나타나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을 채워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하늘나라는 이러저러하게 이루어진다.”고 상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긴자란 주의 피 권세로 덮어 둔 계시록의 뚜껑을 여는 자요, 종말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야 그 입을 통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분명히 알아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7)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나는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일곱째 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입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계22:14)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7복은 복이 일곱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7이 완전수인 만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두루마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깨끗하지 못할까요? 무엇보다도 아담이 범죄에 빠져 마귀의 독소가 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진액이 그것입니다. 이 독소가 우리의 핏속에도 전해져 우리의 두루마기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에는 흠과 티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생기로 흠과 티가 없게 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창1:26) 그러므로 그의 두루마기는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두루마기는 더럽혀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모 저모로 역사해 오신 것은 요컨대 이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은 그 속에 독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독소를 제거하는 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주의 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피로 말미암은 생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거쳐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주님 오신 후에 구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수를 힘입어서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이 해독제가 없다면, 여느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범죄함으로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둘째 아담(예수)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백 번 땅재주를 부려도 이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 수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 수십 년 수양하여 도통했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해독제를 먹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

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은혜가 내리면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안찰을 하거나 이 단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분 중에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순교하지 않고도 그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Part 03.

이기는 그 날까지



15. 초림과 재림 · 16. 여호와를 두렵게 섬기라! · 17.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 18. 섭리와 경륜 · 19. 임마누엘에 대하여 · 20. 예언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 21. 유월절에 대하여 · 22. 영광의 반열(1) · 23. 영광의 반열(2) · 24.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Chapter 15.

초림과 재림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알리신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움직이시고 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는 언행에 자유재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마4:9) 육을 입으시고 잠시 천사만 못한 존재로 오셨으므로, 만에 하나라도 본의 아닌 실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염려해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실수하실 뻔한 대목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잠시 꺼린 경우가 그것입니다.(마26:39) 주님이 뜻대로 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권능을 행하여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로마 병정들을 모조리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지상의 왕 노릇을 하면서 영화를 누리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승천하셔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원

한 하늘나라를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제한된 움직임 때문에 그 언행(言行)이 기록된 네 복음서는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듣는 자의 심령들이 어려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못했던 것입니다.(요16:12)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하여금 이 미흡한 데를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요 16:13)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요14:12)는 말씀과 같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피 권세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그 성령의 힘을 입어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 져야 합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충하였으며, 또한 이 사도들은 성령을 부어 못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 했던 것입니다.

내 입에서 깊은 진리의 말씀이 터져나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또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말이 청산유수로 터져 나오느냐고요? 주께서 내 입을 기계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

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영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라갔다가 구름을 타고 당대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마24:34) 그러나 그 후 2천 년이 되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여태 오시지 않을까요? 실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실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그 여건을 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저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예언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럼 주님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당시에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 선지자 스가랴의 말에 준하여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멸망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마24:15) 때가 다 된 줄 알라는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여,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연후에 사도 요한에게 별도로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오늘날 분명히 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 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게 되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 주시고, 약속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

로 하여금 적당한 시기에 터뜨리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증거한 성경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 거기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말과, 계시를 받아서 전한 바울의 말, 그리고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 이상 중에 상세히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의 말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주께서 속히 오신다고 증거했으나, 제자들은 지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바울은 재림주를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먼저 영접하지 못하며 지상의 성도들이 홀연히 변하여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주님이 재림하신 후 천년세계와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을 거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순서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각자 가르침을 받은 한계 안에서 자신이 아는 차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역자들은 주의 재림을 전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여건이 무엇이며, 다시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후로는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24:29, 벡후3:13)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살전4:15-17)

본문에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상 중에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며, ‘살아남은 자’는 땅에서 온전히 구속 받은 성도요, ‘자는 자’란 주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순교자는 지성소에 가 있다가 살아남은 성도보다 먼저 주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자기가 이상 중에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각자 맡은 소임이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주의 공중 영접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살아 있는 성도만 홀연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지며(마 24:29, 벰후3:12) 지상의 성도들은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는 주님’과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계6:10참조) 주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를 세우는 절차(節次)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순교자들은 지상의 동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재림에 앞서

일정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계6:11) 이 여건이란 영적인 십자군, 14만 4천의 편성을 마치는 것을 가리킵니다.(계7:4) 이 십자군은 마지막 아말겟돈 전쟁에 출전하여 마귀를 완전히 소탕해야 할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은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들과 지상에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성소에 가 있는 순교자의 수가 신구약 시대를 통하여 모두 14만 명이려면, 나머지 4,000명은 지상에서 더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마귀의 편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즉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다.”(단7:25)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한 때, 두 때, 반 때의 지배 기간을 연장시켜, 규례(률)를 깨뜨리려는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주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지구상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고 둥그렇게 생겼으므로 주께서 어느 한 지점에 왔을 때 반대 쪽 사람들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 오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는 지구를 빔으로 빙 둘러싸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이 천지 이변에 대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

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마24:29)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강한 빛의 위력에 의해 지구는 물론 하늘까지도 홀연히 용해되어 버리고 해와 달빛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여호와께서 처음에 지으실 때의 원상으로 복귀되어 다시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마24:38)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16.

여호와를 두렵게 섬기라!

- 모세의 교훈 -



우리는 하나님의 일면만을 믿고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곧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합당하게 움직일 때 자비하신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채찍을 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내시고...” (느9:28) 이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과 채찍을 가하시는 하나님, 이 양면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후로는 그 노가 풀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겨서 역사하시며, 구약 시대처럼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그때 노를 발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더디 노하시는 것뿐, 때가 되면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계20:12)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큰 섭리가 베풀어질 때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 그 역사를 좌우하게 되므로 그들에 대한 주의 움직임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방불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나눌 만큼 전무후무한 큰 종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이 그만큼 크고 또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실패한 종으로 목적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우리의 거울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시에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며, 남녀노소를 합치면 약 150만이나 되는 인구가 동시에 피난길에 나선 것과 양상이 흡사한 것입니다. 그 행렬은 100리까지 뻗쳐 영도자 모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

에는 불기둥으로 모세의 거처와 움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는 영도자가 모세였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장막을 치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고 묵어가는 고장이 물 맑고 열매도 많을 때는 백성들이 잠자코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여 고생이 닥쳐오면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최고조에 이른 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이고, 또 하나는 신 광야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주책을 부리고,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 모세를 크게 원망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목도 축이고,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구경을 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는 날에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르비딤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대표 격인 장로들이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즉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이렇게 목이 타서 죽게 만들기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물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돌팔매를 맞고 죽을 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출17:3)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모아서 고기도 먹여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불평하는 원인이 된 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쓴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출15:22-25) 또 그 날 아침에도 여호와께서 내려 주신 만나로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욕박지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종을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른 소행입니다.

모세는 어이가 없어 하나님께 그대로 고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후에는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출17:4) 이런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으니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저들에게 마시게 하여 당신이 살아 계신 증거를 또 한 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가운데 베푸신 것이 아니라 노하심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말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유목 민족인 아말렉이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출17:8)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내세워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쳐들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이 이겨, 싸

움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돌을 쌓아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비로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을 크게 무찔렀던 것입니다.(출17:11-14)

우리는 모세의 옛 행적에서 두 가지 중대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닦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종을 논평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며, 하나님의 역사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켜 자멸의 길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에게 순종했던들, 저들은 금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하나님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끝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영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개각이 있었는데, 아랫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이 물러갔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도력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긴 모세에게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가 미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하시니 괴롭더라도 참으라고 잘 타

일렀던들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최소한도로 축소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다면 그 여파가 여러분 자신은 물론, 나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나는 물론 사전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할 것이며, 교역자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아론과 훌이 모세가 피로하지 않도록 돌로 앓을 곳을 만들어 주고 두 손을 붙들어 올린 것처럼 내 손발이 되어 주어야 하고, 일반 성도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주님께 충성하여 3자 일체가 되어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따를 테지만, 이것을 딛고 넘어서 박차고 나갈 때 본인의 믿음은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착착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 닥쳐도 주저앉아 이러쿵저러쿵하면 그의 공로는 와르르 무너져 본인 자신은 물론 이 역사 전체에 흠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Chapter 17.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영계(靈界)를 알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와 동떨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계의 문을 여는 열쇠의 하나로서 우리에게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 세계에 이르기에는 어딘가 좀 미흡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도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은 영의 세계를 아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고 있던 주님 당시에(요7:39)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것도 별로 탓할 것이 못됩니다. 그들은 저마다 속셈이 있어서, 즉 주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되찾으면 한 자리 하겠다는 감투욕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5병2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놀라워했으나, 주

님 최대의 기적인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양이니 당시에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은커녕,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긴가민가하여 얼른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주께서 무참히 잡혀 죽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들이 스승의 무덤을 찾을 엄두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제자들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활을 믿었다면 마땅히 주님의 지시대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마26:32) 그래도 생전의 인연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정성이나마 기울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를 주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신임했던가는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주님의 행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즉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그녀를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하고 슬그머니 분통을 터뜨릴 만도 한 일입니다. 아무튼 그만큼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신임이 두터운 반면에, 제자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마리아는 주님 생전에 주님을 잘 섬기고, 제자들은 주님을 섭섭하게 했다는 뜻도 됩니다.

둘째로는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 앞이었습니다.(눅24:50) 즉 주님은 마리아를 생각해 하고많은 장소 가운데서 이곳을 승천하는 장소로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녀가 당시에 주님을 제일 잘 믿고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막달라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전도를 중단하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실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의 부친이 죽었을 때, 잠깐 가서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고 주님께 허락을 구하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마 8:22)고 하신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곧 그 집을 찾아가신 것은 평소에 마리아의 오라비로서 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할 때, 마리아의 이야기도 곁들여 달라고 당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훌륭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Chapter 18.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역사는 대체로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할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대에 인품이 제일 고결하고 학식이 많아 못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자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역대의 종들은 그렇지 않고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때로는 당신의 적대자까지도 등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이기도 합니다.[\(사43:7\)](#)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의 존경(영광)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진 이후의 인간은 도저히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의 훌륭한 인격자라는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등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고귀한 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장본인에게서 우러난 것으로 알고, 그를 더욱 존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그만큼 더 가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택하실 때 가장 꺼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극(極)에서 극으로 간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바울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소송 한 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죄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곧이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하고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바울 같은 놈을 들어 쓰시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였으니.”(롬9:6-7)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네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같이 많이 퍼져 번성할 것이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앞으로 아내가 자식을 무더기로 낳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 봐도 아내 사라는 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사라도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럴 수가 있나?’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개꿈을 꾸었나?’ 아브라함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세월은 흘러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감감하므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아내의 권유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아들을 얻은 줄 알고 무척 기뻐하여 금이야 옥이야 하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장차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같이’ 퍼지게 될 터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 아내 사라는 아들은 낳을 터이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일렀습니다. 이삭이란 히브리말로 ‘웃는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습니다.(창17:17)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창18:12) “아니 내가 이제 와서 아이를 낳는다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번야말

로 아내가 한꺼번에 몇 쌍둥이씩 대량 생산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과는 달리 리브가도 오래도록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내외는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약속해 놓고도 이렇게 대대로 자식을 낳지 못해 애타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에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비로소 ‘하긴 이상한 일이군.’ 하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축복을 받아 태어난 약속된 인물(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자식을 마구 낳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예정이 따로 계셔서, 하같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정식 아들로 인정하기 않고, 당신께서 은총을 베풀어 낳게 한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럼 하같이 낳은 이스마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계획)안에 있는 언약된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여,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는 좀 색다른 데가 있습니다. 모습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즉 형 에서는 전신이 불그스름하고 털이 많은 반면 야곱은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매끈했으

며, 에서는 성질이 거칠어 사냥을 즐기고 야곱은 성격이 온순하여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서 거의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동시에 태어난 셈입니다. 여기에는 ‘그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이게 하려는’(창25:23)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각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태어났지만,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창25:23)

왜 하나님은 동생이 형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되게 하였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우대하는 것이 상례(常例)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리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은 폐하려 하시나니”(고전1:27-28)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밀려나게 되었으니,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사도 시대를 예로 들면, 베드로는 강자로 군림하고 바울은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앞선 역사는 강자의 위치에 있고, 나중 역사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 불균형은 깨어져 나중에는 거꾸로 되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나는 구태여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 결부시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도 극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부분적으로 베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 봐야 헛수고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Chapter 19.

임마누엘에 대하여

- 성탄절을 맞이하여 -



오늘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후 다섯 번째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이날을 경축하는데,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망정이지,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출생부터가 특이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눅1:35)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일렀습니다.(마1:23) 임마누엘이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의 위치를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처음으로 접촉할 경우에 흔히 중립국의 중개를 거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어서도 안 되고 인간이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의 중간자, 즉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신인 그런 존재라야 하며, 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은 신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이중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어려워하고, 따라서 기독교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神性)과 인간성을 아울러 지닌 것은 그 출생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잉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잉태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예수는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그 인성(人性)으로 인하

여 인간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예수의 중보에 힘입어 하나님과 접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 주님의 덕택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다윗,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미가 등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어 있으나, 특히 이사야는 주님에 대해 많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암흑에 행하던 백성이 큰일을 보고…”(사9:1-2)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이나 납달리는 본래 야곱의 아들 이름이며, 나중에 지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들 지파는 레위나 르우벤, 므낫세와 같은 굵직굵직한 지파들과는 달리 행세를 하지 못한 작은 지파로, 이들이 흩어져 살던 요단강 저편의 갈릴리 땅은 여호와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주님이 이 고장에 나타나 역사하심으로써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육적인 생모로 택함을 받은 것은 당시에 이 지역에 살았기 때문이며, 모세의 율법대로 처녀가 잉태하였다고 해서 돌벼락을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약혼자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이 갈릴리 지방에 사는 요셉의 약혼녀로서, 믿음이 독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때와 장소를 잘 타고 난 덕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장소와 환경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물론이고, 선지자나 사도들을 만나게 되어 남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시대와 장소와 환경을 잘 타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hapter 20.

예언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역사(役事)는 크게 셋으로 구분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예언된 시대에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역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된 시대는 모세 때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12:7)고 하신 언약대로, 모세를 내세워 애굽에 가 있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시대는 주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터이니,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신(신18:15, 행3:22) 언약을 비롯하여,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대로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은 마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시대는 이긴자의 때입니다. 즉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 주시고 들려주신 언약대로 이긴자가 나타나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예언대로 값없이 생수를 전해주며, ‘이한 낮으로’ 알곡을 거두는 오늘의 역사가 그것입니다.(계21:6-7, 14:16)

그런데 이 세 예언된 시대의 모든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것은 앞으로 주의 피 권세로 그들을 구원할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며, 이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것도 주의 보혈로 말미암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요5:39-40)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 별로 감명 깊지 않으나, 주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정상을 계산에 넣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주님의 한탄이자 경고입니다. 본문 말씀에 성경이 주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말라기에 이르는 39권을 요약하면, 결국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을 빼 버리면 아무 가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백성들, 특히 교권을 쥐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제사장
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새파란 시골 청년이 불쑥 나타나 이런
폭탄선언을 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몰라보고 푸대접하다 못해 십
자가에 못 박아 버린 처사를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
다. “그렇게 큰 이적을 보여 주고 신령한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어떻게 그
럴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안 그
러졌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은 오히려 당
연하기까지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제일 잘 믿노라고 앞장선 부흥사,
선교사, 신학자, 교역자 할 것 없이 거의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
습니다. 이들에게는 명성이 따르고, 돈이 붙고, 영화가 돌아오지
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합당이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요긴한 것은 계시록입니다. 계
시록은 성경 66권의 총결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은 이긴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의 중심인물이 이긴자입니
다.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시록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
계에서는 계시록을 덮어 두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긴 계시

록을 해설한 책이 더러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남의 생각을 빌어 왔거나 자기 짐작대로 써 놓은 것으로, 전혀 줄기가 서 있지 않습니다. 터뜨릴 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단12:9, 계2:17참조)

예언된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오늘날 뜻있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간혹 상고하지만,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며,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 이긴자를 찾아 그 은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설교가 우물 안의 개구리 소리로 들린 것처럼, 오늘날 이긴자가 나타나 외쳐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것이 죄인 것처럼, 이긴자를 외면한 것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린 격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마10:41)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예언된 시대가 오면 당연히 큰 변혁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앞선 자가 뒤에 서고, 뒤진 자가 앞서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긴자의 역사에 ‘자기’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이라도 나를 앞세울 때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힘입어 이름이나 내고 평평거리는 것은 가장 금물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인격을 자기 인격으로 삼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혜를 연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주의 인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Chapter 21.

유월절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감하는 때가 흔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내세워 여러 모로 역사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시대 이후 간간이, 그나마 매우 드물게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으로 역사해 왔으므로, 여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증거를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한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역사한 행적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율법을 반포한 것이 이 모세 때입니다. 나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왕)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살피시는 우리의 새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만으로, 애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인의 압제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 주기 위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즉 강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뒤덮게도 하고, 애굽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게도 하고, 애굽 땅에 파리 떼가 까맣게 덮벼들게도 하고, 전국의 가축을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재가 온 애굽의 티끌이 되어 사람들에게 부스럼을 내기도 하고, 주먹만 한 우박을 내려 전 애굽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메뚜기가 전국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도 하고, 심지어 3일 동안 애굽 땅을 암흑천지로 만들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는 이처럼 호되게 당하고도 모세를 불러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희가 기르던 소나 양은 다 애굽에 그냥 두고, 몸만 이 땅에서 빠져나가라.”(출10:24)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로 내린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長子)를 모조리 죽여 버린 것

입니다.(출12:29) 이것은 가장 무자비한 재앙으로, 온 애굽 땅이 하룻밤 사이에 눈물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출세한 요셉의 후손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류층에 속하여, 애굽인들의 압제를 받아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여간해서 이들을 풀어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모든 애굽인 장자들에게 내린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 있지 않은 애굽인들의 집 장자들로 하여금 마치 쥐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전신을 비틀며 아우성을 치다가 참혹하게 죽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은 삼시간에 통곡 소리가 하늘에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이상 중에 본 광경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재앙을 내렸을까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빨리 들여다보시고, 이 정도로 혼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정사정을 돌아보지 않는 여호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는 특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그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을 급히 먹으라.”(출12:11) 여호와께서 긴급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무슨 이변(異變)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여차하면 일시에 뛰쳐나와야 할 판이니, 언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려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하며,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들과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질 판이라, 하나님은 혹시 당신의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되돌아갈까봐 모세에게 방향을 바꾸어 홍해에 이르는 광야로 인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인도해 놓고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여 당신의 선민들을 뒤쫓아 쳐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괜히 진로를 바꾸어 자기들을 옥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앞길은 바다로 가로막히고 등 뒤에는 바로의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호와의 깊은 계략이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런 진퇴유곡의 곤경을 무난히 벗어나게 하는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어, 당신이 같이 하신다는 산 증거를 제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

와의 이러한 기대를 고스란히 저버렸습니다. 즉 조금만 괴로워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난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맨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흠에 묻히게 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놓여나게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그 날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라 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였습니다. 명절이란 으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보내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괴롭게 보내야 하는, 달갑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가축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당신에게 모두 바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이 한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의식으로, 장자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일종의 세금을 바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접어들어 그 은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규례에 묶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은혜의 멍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역사하시던 구약 시대의 일이지만,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 것처럼, 성령을 부어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의 율법으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모저모로 일일이 살피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22.

영광의 반열(1)



나는 영광스러운 멜기세덱의 반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개념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 행적에 대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학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적으로 말하면 살렘 왕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의(義)의 왕이요,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며 영원한 제사장”(히7:2-3)입니다. 죄인은 ‘의의 왕’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것은 지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어진 임금을 성군(聖君)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지상의 인덕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도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

고 ‘평강의 왕’도 그렇습니다. 평강이란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 흔들림이 없다는 뜻인데, 세상에는 이런 임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늘 마음이 어지러워 잠시도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영적인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 즉 알파요 오메가인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육적인 물질을 드리고 멜기세덱은 영적인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치는 아브라함과 받는 멜기세덱은 어느 쪽이 더 큰 인물입니까? 물론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멜기세덱을 삼지 않고 아브라함을 세웠을까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없으면 멜기세덱은 축복을 할 수 없고, 멜기세덱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십일조를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물질을 바치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아브라함에게도 따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인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못하지만,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높은 직분인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모세 때 율법을 선포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율법 없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 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입니다. 그 후 대대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배출되었으며, 이를 가리켜 ‘아론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멜기세덱은 물론 아론보다 수백 년 이전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상으로 보면 맨 처음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론을 처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멜기세덱은 전혀 다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주님의 그림자로서 미리 선정한 분이 곧 멜기세덱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장차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기로 정해진 존재입니다.(시110:4)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거롭게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의 직분 이외에 다른 직분을 제정하였을까요?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죄인이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7:11)

이렇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인 주님을 좇아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반열이 있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신구약 시대 순교자들이 그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계20:4-6)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자는 영광을 드리는 위치가 아니라, 영광을 받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됩니다.(계 20:6) 주께서 처음으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에게 그 반열에 속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Chapter 23.

영광의 반열(2)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배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인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긴자를 통하여 생수가 주어지기 전에는 지상에서 죄를 씻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계21:6-7, 속13:1\)](#)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은 쉽사리 될 수 있으나 군병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주님은 군병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데려다 죄를 씻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바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며 이들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다가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해서 다 순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신도는 저 네로 이후 우리나라의 6.25동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공산권에 속하는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죄가 되어 많은 신도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늘 군병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순교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순교란 아무 두려움이나 미련 없이 기꺼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섰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무후무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와 대적할 만한 하늘 군병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영은 온전한 자격을 이루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계13:8) 그리고 일단 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영은 지성소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죄를 지으면 사망책(책들)에 옮겨집니다.(계20:12-15 참조)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여 은혜 연결을 받거나 안찰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곧 명단이 천사의 손에 의해 생명책으로 옮겨지며, 그 후에 죄를 지으면 다시 사망책으로 옮겨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명단은 끊임없이 생명책과 사망책에 올랐다, 지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

에 기록된 자를 원하십니다. 이들만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자마자 사망책에 기록됩니다. 더러운 아담, 하와의 죄와 연결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므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은 더러워지기는 했으나,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워진 영을 깨끗이 씻기 위해 주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순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순교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세대에 순교자와 같은 자격자를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종이 곧 계시록에 기록된 이긴자입니다.

이긴자란 요컨대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이긴자 앞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성령이 24시간 내내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것은 물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 권세로 됩니다.(속4:6) 만일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긴자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소명을 받아 못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군대를 배출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은총 안에 들어오면 순교하지 않고도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20:23) 이것은 사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행8:17, 19:6) 이러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에게 이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긴자 시대에는 하늘의 기록을 지우는 것 뿐 아니라, 생수로 직접 몸에 있는 죄를 소멸시킵니다.(속13:1, 계21:6-7) 이긴자에게는 못 사람들을 성령으로 씻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긴자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성령이 불담으로 지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성령을 부어 주기는커녕, 자기가 먼저 쓰러질 것입니다.

Chapter 24.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계21:9-11) 이것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보여준 광경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계15:1)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특징의 하나는 숫자적으로 표시하여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 12기초석과 12문, 24장로, 14만 4천 등등, 표현이 숫자적으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실제로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보석으로 꾸민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아

내를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 아내의 수가 다 차면 새 예루살렘 성, 곧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네모가 반듯한 성곽, 즉 울타리가 있는데 출입문은 한 면에 세 개씩 열두 개요, 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서서 지키며, 그 문 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계21:12) 그러니까 지파마다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천사는 이를테면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기의 지위가 높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지위가 높습니까? 아파트의 수위는 입주자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 경우의 천사는 주의 아내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사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장보다 지위가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이 열두 문으로 갈라져 들어가게 되므로, 한 문에 1만 2천 명씩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이 문마다 쓰여 있는 열두 지파의 이름은 마치 우리네의 문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가구의 식구가 몇 명이건 문패에 호주의 이름을 대표로 써 붙이는 것처럼,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은 거기 속하는 1만 2천 명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아론의 흉패에 야곱의 아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의 이름을 죽 기록한 것은 14만 4천을 나타내는 예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계21:14) 이 기초석은 세상의 그

것과 달라서 수정같이 맑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도 사도 요한의 눈에 환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이 몇 번째 기초석에 쓰여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에덴동산도 새 예루살렘성과 같은 투명한 보석들로 꾸며져 매우 찬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상을 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립니까?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것을 이영수는 보아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의 구조를 볼 때 기초석은 신약 시대의 사도로 구성되고, 문은 구약 시대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 구약 시대를 통틀어 의로운 자의 수가 이 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배출된 의로운 자의 이마에는 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구약 시대에 배출된 의로운 자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꿈같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죽음은 물론 슬픔과 한숨, 불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빛이 환히 비치므로 그림자가 없고, 유리 같은 정금(精金) 길을 가면서도 자기 모습이 분명히 비치는 세계가 실제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로 비유하고, 성전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표시(계21:22)한 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과 주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성전은 어디까지나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주의 아내는 천년세계에서 성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즉 성은 이들 아내가 거할 집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가 형성되어 실제로 왕 노릇을 할 때의 집과는 물론 다릅니다.

내가 이상 중에 본 바에 의하면 이들 왕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각각 방 하나씩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각 방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방들이 있고, 각 문에는 왕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반을 표시하는 문패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파의 대표자가 두령 격이 되며, ‘이기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킨 자’ 곧 이긴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주의 지시에 의해 그 서열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계3:12 참조) 그 그림자로서 보여 준 것이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12 지파의 두령들에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각각 분깃을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한동안 짓밟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입니다. 이를 가리켜 주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마 24:15)고 했습니다. 그 기간을 다니엘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시하고,(단12:7) 계시록에는 3일 반, 또는 1,260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계11:11, 12:6) 어린 양의 아내들이 천년세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은 요컨대 이 환란 기간이 지난 후에 맞을 최후의 결전(아마

겻돈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최후의 결전에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 어린 양의 아내는 왕이 되어 각각 자기 분깃을 맡아서 심판을 거쳐 치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판도가 넓은 왕과 좁은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은 세상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앞에 올수록 서열이 높아, 넓은 판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실감이 안 납니까?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어서 전할 뿐입니다. 다행히 주님은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의 규모를 잠깐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한 6천 년 가까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가 약 40억이지만, 아담, 하와가 이 땅에 떨어진 이후 죽은 자의 수를 1조라고 한다면, 이것을 14만 4천으로 나누면 약 700만이 됩니다. 즉 그 나라에서 왕 한 사람이 다스리는 인구는 평균 700만 명꼴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추릴 자는 추리고, 지옥에 보낼 자는 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심판의 광경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20:11-12)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니라 14만 4천의 왕들이 갖고 있는 생명책으로, 여기에는 심판을 통해 구원 받을 무리의 명단이 기록되며, 또 책들에는 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추도예배는 이 심판 때에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고전15:29 참조) 그리하여 지옥에 떨어질 자도 천사의 상신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그 명단이 생명책으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린이의 심판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이라도, 그러니까 가령 생후 한 시간 만에 죽어서 자범죄가 없어도, 원죄와 유전죄에 의해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세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룰(규례)에 의해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이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 우리 피 값을 갚지 않으시렵니까?” (계6:10) 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곧 원수를 갚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미리 알았다더라면 이긴자의 역사에 유의하여 때가 되기를 참고 기다릴 망정, 이런 항의는 입 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일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때를 잘 타고나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켜볼 때, 선지자를 만난 백성은 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불행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6-17) 이것은 주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Part 04.

예루살렘의 별



25. 가인과 아벨 · 26. 마가엘 천사장에 대하여 · 27.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 · 28. 영의 양식에 대하여 · 29. 이긴자의 철장 · 30. 시대와 축복 · 31. 하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 · 32.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 33.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 34. 성령을 받으라!

Chapter 25.

가인과 아벨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는 죄 짓기 이전과 이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신령한 영체였으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육을 입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들에게 마귀의 독소가 스며들어 거룩한 곳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는 죄에 떨어져 미개한 원시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생활은 물론이고, 그 후 수많은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미개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굴속에서 살고, 음식은 날로 먹고, 온 몸을 뒤덮은 털이 옷을 대신하는 그런 생활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성을 필요로 하는 본능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관념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들과 교류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세대를 두고 인류와 떨어져 계시다가,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철이 났을 때 비로소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할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죄에 떨어진 인류를 건지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뒤 긴 세월이 흘러간 후의 일입니다. 그 동안에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사이였으므로,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공백 기간, 즉 선지자 말라기에서 세레 요한에 이르는 약 43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 있었으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되어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지각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미개한 사람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업을 보면 양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원시 시대에서 오랜 세대를 지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城)을 쌓아 외적을 막았습니다.(창4:17) 만일 가인과 아벨이 아담, 하와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라면, 네 식구밖에 없는데 외적의 침입을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났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창4:14)

이들은 모두가 아담, 하와의 후손들로, 가인이나 아벨과 마찬가지로 지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 일이며, 아담, 하와가 죄에 떨어진 후 무수한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 하와의 아들로 표시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비로소 교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깃들여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 짓기 이전의 아담, 하와와 가까이 교류하고, 그 후 오랜 공백기를 지나 가인, 아벨과 비로소 교류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양자를 연결시켜 혈연관계(血緣關係)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컨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딤후1:2) 가인과 아벨도 그런 의미에서 아담, 하와의 아들로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눠보면,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특이한 점은 그것이 하나의 사실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만 간추려서 기록한 것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요컨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내용만 기록하게 했으므로, 앞뒤가 잘 연결되지 않는 대목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을 직결시킨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은 아내를 취했다고 했습니다.(창 4:17) 아담, 하와가 동침하여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고 볼 때, 가인의 아내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창5:22)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선지자도 성경에 몇 페이지씩 기록되어 있는데, 300년이나 동행한 에녹에 대해 왜 이처럼 몇 마디만 언급하고 말았을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해 구구한 억측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사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사의 원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즉 제사에는 상달되는 것

과 상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상달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공경하여 드린 제사인데,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요컨대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고, 가인은 합당하지 않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창4:7) 즉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합당한 제사는 받고, 합당치 못한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달되는 제사를 드린 자는 상달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린 자의 핍박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자들 사이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그렇고, 사울과 다윗,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도 그러하며, 오늘날 주의 종의 역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앞선 역사가 이어지는 역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Chapter 26.

마가엘 천사장에 대하여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使者)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꺾는 자라.” (계12:7-9)

하나님은 부리는 영으로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천사는 여러 계급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천사는 일종의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총사령관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이런 총사령관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은 이 두 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측근 수호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나 마귀와 마찬가지로 영체이므로 우리의 육안

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흔히 천사를 날개가 달린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여 그림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위에 그룹의 형상을 새기도록 보여주실 때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며, 천사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다. 주께서 영체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와 다른 측근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인 것처럼, 천사도 흔히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나타나지만 이것은 잠시 육을 입은 형체를 취했을 뿐, 물론 우리네 자연인(自然人)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을 뱀의 형체에 뿔과 발이 달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려내지만, 실제로 용은 그런 모습이 아니며, 자기 세계에서 보좌에 도사리고 앉아 마귀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신이니 신령님이니 하고 섬기지만, 실은 이 용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고, 용이나 천사와 같은 영체는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상 존재합니다.

첫 머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용은 각각 사자(使者)를 거느리고 싸움을 벌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언제나 마귀와 싸웁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운 것도 미가엘 천사장이며, [\(유1:9\)](#)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게 한 것도 이 미가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든 본문 말씀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줄개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즉 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도전하는 마귀의 왕초인데, 미가엘 천사장을 당하지 못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사이에 두고 싸울 때와는 판이한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 주님을 보호하는 것도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이 용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단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미가엘 천사장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마귀를 쳐부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그 배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긴자를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소개한다고 했습니다.(계3:5) 이 천사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것은 물론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리하여 미가엘 천사장은 언제나 이긴자와 행동을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켜 하늘 군병의 수를 채우는 것이 이긴자의 사명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여러분이 안찰을 받고 몸에 지닌 악의 세력을 물리칠 때에도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시체에 생수를 발라 아름답게 변하게 할 때에도 역시 미가엘 천사장이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를 꺾을 때에는 언제나 배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줄개 마귀 한 마리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Chapter 27.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종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종들을 내세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종으로 택하신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들이 활약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 종을 교체하여 한동안 말썽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 자체는 아무 변동이 없이 줄곧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말썽이 생길까요? 이런 부작용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생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 ‘자기’를 내세울 때 한동안 알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것은 조만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며,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심심찮게 구경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오늘은 좀 더 그 내막을 깊이 캐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기는 하지만, 그 인간됨이 주님의 수제자감으로서 별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가까이 따르게 되었으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구세주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도 하고, 주를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나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자고로 쓸 만한 그릇들에게는 그런 계산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영도력이 있고 성격이 괄괄하며 매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한편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여 주님을 해치려는 자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고,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초막을 지어 모실 것을 제의했으며, [\(마17:3\)](#) 주님이 붙잡혀 끌려가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으나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또 솔직 담백한 성격의 소유자라, 이 제사장의 집 뜰에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바울이 옳다고 생각되자 그를 인정하기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이므로 주님도 그를 수제자로 삼고 여러 모로 아껴

주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과는 처지가 다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었으나, 사도 요한에게는 주께서 그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제일 먼저 안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를 기특하게 여겨 이름까지 베드로(반석)라고 고치게 하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 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했던 것입니다.(마16:19)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반석(베드로) 같기는커녕 모래 위의 원두막처럼 흔들릴 때, 주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요21:15)

그러나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구변도 좋아 하루에 3,000명이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명실 공히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실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 부흥사로서 맹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측근들로부터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증거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돌변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돌아다녔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딘가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여겨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베드로도 바울에 대해 차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대충 알아보았더니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알고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의 폐지를 주장했으니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지 말라고 엄중히 단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니 바울을 지지하는 무리가 상당히 늘어나 무시 못 할 세력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노라.”(고후11:5)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란 물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바울이 자기의 만만치 않은 적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여기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즉 쓴 뿌리를 잘라 버리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갈1:9)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저간의 소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종들끼리 한동안 치열한 암투(暗鬪)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래

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담판을 하려고 했으나, 베드로는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갈1:19) 아직 바울의 기반이 온전히 닦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을 따르는 무리는 눈사람을 굴리듯이 늘어났으며, 그 중에는 베드로를 따르던 자들도 상당히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찰을 하여 성령을 부어주고, 병자를 고치는 등, 권능도 베드로 못지않았을 뿐더러, 말씀이 새롭고 오묘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세력이 커지고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바울에게 점점 더 많이 쏠려 이제 양쪽이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되자, 베드로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불가불 어떤 용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협상할 시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언제까지나 대립과 반목을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양측에서는 열띤 교리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즉 ‘할례 지지론’과 ‘할례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 결말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담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가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지 14년 후의 일입니다.(갈2:1) 그러나 이때 바울은 교리도 교리지만, 지지 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해서 양측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는 역사적인 간부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갑론을박(甲論乙駁)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드디어 베드로가 바울의 ‘할례 폐지론’을 인정 함으로써, 교제의 악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행15:7, 갈2:9)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일과 마찬가지로 힘의 밀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진리라 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로 피차에 평행선(平行線)을 달릴뿐더러, 반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몇 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사람이라면 우습게 대했으나, 근래에 와서 원자탄, 수소탄도 만들어 제법 실력을 기르니까 미국이 탁구 경기다, 만리장성 관광이다 하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대립될 때 처음에는 강자가 약자를 밟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커지면 방해 공작을 벌이고, 다음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협상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은 갈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볼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역사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옛 것을 고집하고, 바울은 새 것을 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때 결국 득세하는 것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고전14:30)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부가 결정 내려면

진리도 진리지만, 힘의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실히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Chapter 28.

영의 양식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있었으므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보는 순간 강한 빛에 눈이 멀어 죽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주의 밝은 빛을 보는 순간 졸도하다시피 한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도 호화찬란한 빛을 발산하여 정체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주님이 육을 입지 않고 그냥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주님을 보는 즉시 그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까무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와도 이런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의 아내가 입는 ‘빛나는 세마포 옷’이란 요컨대 이 빛의 옷을 가리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형상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으

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본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계1:16-17)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을 입으신 주님은 빛이 사라지고 마리아의 아들 시골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육신을 입은 죄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이 밝아지고, 수치를 느끼고, 추위를 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하와의 후손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근 6천 년 동안 애쓰고 계시며, 에덴동산을 회복하시면 인간은 아담, 하와와 같은 빛의 존재로 되돌아갑니다. 이를 위해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럼 발가벗었느냐? 아닙니다. 빛이 곧 그 옷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벗어도 벗은 줄 모릅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가 입는 빛나는 흰 세마포는 당시에 제일 값진 옷감을 상징해 말했을 뿐, 실은 일곱 가지 무지갯빛으로 찬란히 영체를 휘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의 강도(強度)에 따라 서열(序列)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도 영체이므로 옷이 없습니다. 자주 빛이 마귀의 옷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기독교는 육보다 영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므로 육의 것을 더욱 존중합니다. 그것이 훨씬 실감이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해를 정지시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주의 형상을 입는 것이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상을 갖출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0일 단식하고 산기도 100번 해 보십시오. 되는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긴자를 내세워 크게 역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이긴자를 통해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수를 단시일에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공업을 하다가 기계를 발명하여 대량 생산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기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긴자입니다.

아담, 하와는 빛 가운데 거하다가 어둠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 있는 그 후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리한 고지(高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곧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계21:6-7) 오늘날은 이 말씀이 응해지는 때입니다. 이긴자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행동에 나타나야 합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을 염두에 두고, “갈

한 자에게 물을 준다.”(사44:3)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생수를 주지 못하고,(요 7:39) 이긴자가 나타나면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에 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땅에 계실 당시에 생수를 주실 수 있었던들 구태여 사도 요한을 통해 다시 이런 약속을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도 그 당시에 생수의 은혜는 주시지를 못했습니다. 피 흘리시기 전의 주님은 약속을 했을 뿐 실천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즉 성령이 그의 온 몸에 불과 같은 뜨거움을 느끼게 하면서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 감각적인 느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생수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수를 만드는 것은 주님이지만, 생수를 주는 것은 이긴자인데, 당시에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시록의 주인공인 이긴자가 생수를 유업(遺業)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생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모세 시대는 물론이고, 생수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시대에도 생수는 없었으며, 주님 당시나 사도 시대에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긴자가 나타난 시대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앞

에 인용한 본문 말씀이 이 땅에서 응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엄연한 사실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화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수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기’ 위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하여 이 빛나는 옷을 입고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동산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다시 원점(原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계1:8)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어떤 형태로 표시하자면,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이 됩니다. 즉 사태가 360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에덴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급속한 회복을 위해 주님은 이긴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 드리는 것이 주님이라면 주의 소원을 풀어 드리는 것이 이긴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대신 움직이고, 이긴자는 주님 대신 움직이는 것입니다.(계3:21) 이것이 실제로 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한 역사가 사라져갈 때 다른 종을 내세워 복구할 것을 당부하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주의 종이 입김을 부는 쇠쇠 소리도 다시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의 귀중함을 절실히 느끼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초청해 놓고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처럼 딱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물며 이영수야 말해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을 입증할 때 여러분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역사에 한 번 발을 들여놓은 것을 우연한 일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29.

이긴자의 철장



여러분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겠지만, 그 권세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덜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긴자를 증거하는 나도 아닌 게 아니라 때로는 어리둥절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계시록 강해에서 대충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 하나님의 오른 손에 인봉한 책이 놓여 있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책을 퍼볼 사람도 없어 요한은 원통한 나머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계 5:4)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원통해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왕위에 오르면 저마다 한 자리씩 하려고 했습니다.(마20:21 참조) 그런데 차츰 알고 보니,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열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동을 대신하여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까지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터놓고 말하면, 주님은 왕이 되지 않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감투 하나 얻어 쓰지 못하게 될 테니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항의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베드로의 처지에서 보면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 둔 의문을 버리고 별려서 터트린 말이지만, 수제자의 체통을 스스로 깨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마.”(마19:28) 이 언약에 대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불만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요컨대 “내가 죽은 다음에 보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언약이 탐탁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언약에 한 가닥 소망이나마 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보니, 주님의 모습은 눈에 띄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내가 괜히 한 평생 하나님의 아들을 따름네 하고 헛고생을 했구나!” 하고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여 울음이 솟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로 한

사람의 입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의 일곱 인을 떼시리라.”(계5:5)는 말이 떨어지자 주님이 천사와 24장로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난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비로소 “옳거니! 주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옥체를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히5:9-10)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대로 홀연히 변하여 승천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지라도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긴자가 끝까지 당신의 일을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계2:26)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하늘 군병의 수(14만 4천)를 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설사 이긴자로서 주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만국을 다스릴 철장’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긴자란 요컨대 주께서 당신 대신에 해야 할 일을 맡아 달라고 세운 종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대신 역사하시고, 이긴자는 하늘 군대의 편성을 마칠 때까지 주님 대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재료는 주께서 주십니다. ‘흰 돌’이니 ‘생수’니 하는 것이 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의 십자군을 편성하려는 당신의 뜻을 이긴자가 이런 재료를 갖고 이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긴자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 이긴자가 주님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의(異議)를 제기하거나, “그건 저로서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감히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즉시 은혜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절대 복종이 있을 뿐, “왜?” 라는 탄이 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 물론 주의 것이지만, 주께서 이긴자를 통하여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국무총리에게 내주어 대행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긴자에게는 권세와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소임을 다하면 책임을 완수한 대가로 하늘나라에서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계3:21)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육적 이스라엘의 두령들에게 분깃을 나눠 준 것처럼, 이긴자는 주의 지시에 따라 그 세계에서 영적 이스라엘의 왕들의 서열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계3:12 참조) 그러므로 이 경우에 이긴자를 따르며 함께 고생한 권속들에게도 자연히 응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세운 이긴자라고 해서 무조건 특권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맡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이긴자’이기는 하지만, 개인으로서 그 반열에 참여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긴자면 뭘 합니까? “독불장군은 없다.”는 세상 말대로, 그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는 따르는 권속들과 혼연 일체가 되어 호흡

을 같이해야만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권속들이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나 하고 이긴자를 밀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귀는 영도자 하나만 꺾으면 그것으로 승리를 거두게 마련입니다. 원 줄기가 쓰러지면 가지가 뺏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등이 수만 개 있어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끄면 그 전등은 촛불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불철주야로 애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릴 데까지 다 달려가 사도들보다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즉 하늘 군병을 가장 많이 배출시켰던 것입니다. 탄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할 일입니다.

Chapter 30.

시대와 축복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치리하시지만, 거기에는 경중(輕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귀증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중에 따라 크고 작은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역사하셨으며, 또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차지하는 시대의 비중은 주께서 정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의 욕을 다스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구약 시대와 인간의 혼을 다스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하나님께 똑같은 충성을 했을 경우에 전자보다 후자의 성도가 서열에서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계20:4 참조)

그리고 육을 다스리는 성령이 역사한 같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도 모세 시대의 사람과 이사야 시대의 사람, 아모스 시대의 사람은 설사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같아도 그 시대의 비중에 따라 서열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혼을 다스리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불의 성령이 역사하는 한 증거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은 불, 생수, 이슬의 성령이 역사하는 세 증거 시대에 하나님께 똑같이 충성을 다한 사람보다 서열이 자연스럽게 치지게 마련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해도 구원 얻기 어려운 시대가 있고, 고생을 덜 해도 구원 받기 쉬운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한 시간 일해서 1,000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일해야 1,000원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지닌 능력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 섭리가 지닌 비중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백성에게 이런 차별 대우를 한다면 모를까, 시대와 장소와 여건이 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사이므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뜻이 따로 계신 것입니다. 또 설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보이더라도, 그 지음을 받은 질그릇인 우리로

서는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시대에 태어나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의 불가항력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워 역사하실 때에는 으레 어떤 조건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주님도 뉘미세덱의 첫 열매가 되어 대제사장의 위치를 차지하려면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히5:8-10)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되, 하나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비나 어미 또는 아들이나 딸’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조건은 무엇이였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그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러저러해서 순종 못했습니다.’ 하고 이유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불순종했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데 대해 응분의 책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제시한 조건은 할례를 폐지시키고 하늘의 새로운 법도를 선포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전도의 문호를 넓히면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부르짖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義)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딤후 4:7-8)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만 알고 마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긴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긴자에게도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계2:26)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자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맡으려면 주의 뜻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하늘군병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계6:11 참조) 그러므로 이긴자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겨우 자기 하나 구원을 얻을 뿐, 약속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긴자를 따르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님의 역사에는 이런 냉엄한 일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조건 자비하신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푼 은혜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상을 해드려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려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믿음을 가꾸는 일을 등한히 하면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자세를 갖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니 하고 위안은 받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천국은 벌써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Chapter 31.

하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군림하여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명령을 어길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버림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인간이 우상을 숭배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차 없이 처단을 받게 됩니다. 우상, 곧 하나님의 적을 숭배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죄는 제사를 드려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속죄의 길이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강도질을 했을 경우에도 정상이 참작되어 구제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리저리한 이유로 사람을 죽였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죄상을 고해바치면 제사장은 속죄의 제물을 지정해 줍니다. 이때 제사장이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그대로 해야지, “비둘기는 안 될까요?”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송아지의 피가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 대신 송아지를 희생시켜 죄인에 대한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피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놓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란 생명을 되찾는 작업으로, 이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곧 피기 때문입니다.(레17:11) 그런데 이 피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신, 구약 시대를 통하여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우상을 숭배한 죄와 신약 시대에 성령을 훼방한 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을 상대로 저지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면 국가를 파괴하려는 간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상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내가 10여 년 전에 전도사로서 단을 지킬 때의 일입니다. 아침 밥상을 들고 내 방에 들어온 교회의 식모 할머니

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 듯 벌벌 떨면서 쨍쨍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곧 할머니를 그 자리에 조용히 눕혀 놓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할머니가 갑자기 영영 울고 나서 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영문을 물었더니, 자기가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혹시 꿈에라도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어제 밤 꿈에 빨간 옷을 입은 웬 여자가 나타나 자기 귀에 대고 뭐라고 종알거리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상대로 곧잘 장난을 칩니다. 할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벌벌 떠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간 마귀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을 보고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게는 더욱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이방인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건 살인을 하건 그 대로 팽개쳐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따라 백성을 동원하여 이방인을 칠 때에는 으레 그 성읍의 거민을 칼로 죽이고,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들을 칼로 멸하고, 여기서 빼앗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물건을 전부 불살라 버리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였습니다.(신13:15-16) 이것은 모세가 미디안

을 칠 때에도 그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원주민에게 쳐들어갈 때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마 누구나 몸서리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몰인정하고 무자비하실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 계시고 마귀라는 대적이 없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당시부터 이 마귀의 도전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작전상 이런 초강경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사정을 보았다가는 나중에 더욱 큰 화근을 남기게 됩니다. 그 실례를 우리는 현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게릴라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정상 가나안의 원주민을 일부 살려 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의 풍속에 따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삿2:21 참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의중(意中)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미디안을 칠 때 이스라엘 특공대 두령들에게 하나님의 지시 내용을 전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길 것을 신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의 탈을 쓰고 죄 없는 부녀자나 철부지 아이들까지 모조리 죽여 버린다는 것은 도적이 아닌 이상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두령은 살려달라고 애걸하여 차마 창검을 댈 수 없는 몇 명의 아녀자들을 그대로 사로잡아 모세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인정에 말려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들 두령을 호되게 책망하고 즉석에서 포로들을 모조리 찢러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민31:13-19)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현실주의적(現實主義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당신의 명령도 현실의 여건에 따라 거기 알맞게 변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물자가 귀해져 큰 불편을 느끼게 되자 이방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방인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이나 재물은 빼앗아 오게 했습니다.(민31:32-36)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거친 광야 생활에 시달려, 체질이 연약한 부녀자들이 많이 죽어 자손을 번식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자, 점령한 이방 땅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노총각들의 아내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민31:17)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하나님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절대성(絶對性)을 엿볼 수 있습니다.

Chapter 32.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우리는 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말하는데, 이 하늘은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의 하늘(겔1:26)이며, 바울이 이상 중에 다녀온 3층천으로, 우주를 벗어난 멀고 먼 곳을 가리킵니다. 많은 학자들이 광대무변한 우주의 크기와 그 한계에 대하여 논란을 거듭해 오고 있으나, 성경은 수 천 년 전에 우주 밖의 하늘, 곧 3층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한 눈에 바라보려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이 우주 전체를 알려면 우주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빛입니다. 빛은 1초 동안에 약 30만 킬로미터나 가며, 태양에서 지구에 닿는 데 8분 25초가 걸립니다.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은하의 크기가 약 10만 광년이라고 하니,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수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모두가 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우주 자체도 구형입니다. 이것은 나도 바울처럼 이상 중에 3층천에 갔을 때 본 우주의 형상입니다. 이상 중이라 하더라도 우주를 벗어나 3층천에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층천인 마귀의 세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중에도 반드시 안내자가 따라야 하며 혼자서는 못 갑니다.

아무튼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리는 1초 동안에 340미터 가므로 10리를 가려면 12초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당대에는 물론 안 되고, 몇 만 대 후손 때에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1초도 안 되어 하늘에 상달되어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번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영체인 천사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중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계8:4) 비유해 말하면, 남산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만 해도 이 교회까지 들리려면 10초나 걸리지

만, 전파를 타면 금세 들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우리의 소리를 매개하는 전파처럼,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올리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은혜의 중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는 영체이므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왔는지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의 움직임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의 귀와 눈에 변화를 주어 은혜를 의식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이치가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닿는 순간 즉시 변조되어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불과 생수와 이슬과 같이 임한다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질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미리 이런 예고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인지 다른 신의 악령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긴자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고 했습니다.(계3:5) 그러므로 이긴자가 나타나면 하늘과 땅 사이에 활발한 연결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에는 사단의 세력이 중간에서 차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섭리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바로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말씀은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사55:6) 하나님

의 종이 나타나면 천사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그 종이 역사하던 시대의 백성들의 동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천사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긴자가 역사하게 되면 성전과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와 인 치는 천사가 각각 크게 활동하며, 성도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국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슥1:12)

이것은 선지자 스가랴 때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노하여, 하늘문을 닫은 지 70년이 지나 천사가 저들의 동태를 하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할 때에도 천사가 이처럼 움직이거늘, 오늘날 이긴자의 시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Chapter 33.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하나님과 마귀는 약 6천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편으로 끌려고 하며, 시험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주님도 연단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대로, 주님은 청년시절에 조금도 흠모할 만한 데가 없는 평범한 시골 목수였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서로 농담도 하고 시비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어려운 살림을 떠맡도록 한 것은 연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역경을 훌륭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다음에 광야에서 있던 마귀의 시험도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우기 전에 시험을

했으며,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기 전에도 갖은 역경 속에서 이모저모로 연단과 시험을 거뒀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험에 통과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마귀에게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외교관을 우선 국내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연후에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외국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찾아간 어떤 돈 많은 청년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19:21)는 주님의 말씀을 감당치 못해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당하는 물질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일조의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선 여러분을 십일조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시험에 통과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일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마귀의 편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자니 시험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시험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있는 사람은 물질이 아까워 이 시험에 떨어지기 쉽고, 없는 사람은 돈에 쫓들려 이 시험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안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십일조를 떼어내면 그만큼 소득이 줄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큰 손해를 보는 현명치 못한 일입니다.(말3:10 참조)

다음에는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편으로 도로 빼앗으려는 공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으레 하나님의 시험 뒤에 오게 마련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자기편이므로 시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귀는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악착같이 덤벼듭니다. 우두머리는 건드릴 수 없으므로 그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직분 맡은 분들은 그 나라에서 평신도보다 상은 많으나, 그 만큼 예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없는 재주를 부려도 안 됩니다. 인간은 육을 갖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마귀는 영체로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묘하게 인간에게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말려들게 마련입니다. 유다는 은 30년에 주님을 팔아넘길 때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았구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가 지상에서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싹수가 노랗게 되니 유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

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즉 유다는 감쪽같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났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유다는 예정된 악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가리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고 개탄했습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서 하필 그런 악한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유대관계와 영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인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 시간, 물질을 아낌없이, 또 계산 없이 주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위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도 주님 본위로 살려고 무던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며, 울기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자다가도 눈을 뜨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는 주님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몰라주시나!” 하고 원망할 정도로 매달렸습니다. 주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니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달릴수록 마귀가 주는 시험은 더욱 극성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주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디 경성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는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Chapter 34.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노라.’”(행19:2)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조화이므로,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뚜렷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을 미약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분명한 의식(意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으며, 따라서 그 기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를 가리켜 외람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는 사이비종교의 우두머리로 단정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이런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을 위시해서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이 성령을 힘입어 목숨을 내걸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여 예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근 2천 년에 걸친 단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전도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방방곡곡에 교회가 들어서고 신도의 수를 역대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땅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불만 아니라 생수와 이슬까지 곁들인 세 증거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시오!”하는 전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뿔기세덱의 반열에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새로운 말씀으로 다듬고, 강한 성령의 은혜로 씻어 ‘하늘의 군대’를 길러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대적하여 옷을 더럽게 한 것을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하는 장면을 예표(豫表)로서 미리 보여주었다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슥3:4)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마귀가 더럽혔다는 사실보다는 여호와께서 더럽혀진 옷을 당장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힌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슌3:9) 여기 말하는 돌은 사람들이 ‘은총, 은총’하고 외치는 머릿돌이요,(슌4:7)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마21:42) 즉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 권세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말씀은 구약 시대와 같이 양이나 비둘기의 피로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산 제물이 되어 단번에 드린 피의 제사로 대속하게 될 때, 비로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한다.”는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하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였으니, 교회문을 드나들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주님은 실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히9:26) 이 땅에 오셔서 귀한 피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히10:12-13) 그러니까 주의 피 권세는 성령으로 역사함으로써 마귀를 무찌르는 오랜 작업이 오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은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원수(마귀)가 발등상 되어’ 주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는’ 역사는 주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긴자를 내세워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계2:26, 3:21)

앞에서 인용한 말씀 가운데,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계5:6)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이긴자가 받게 되는 ‘흰 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흰 돌이 일곱 눈을 가진 돌인 것입니다.(속3:9) 이긴자가 나타나면 우선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한 다음, 은혜로 씻어 다시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늘 군대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계3:12 참조) 이때 비로소 이긴자를 통해 하늘 군병이 배출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계3:12) 이것은 좀 더 시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더욱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Part 05.

저 높은 곳을 향하여



35. 만나의 시대와 흰 돌의 시대 · 36.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쓰신다 · 37.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 38.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길 · 39.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 40. 귀가 있으면 들으라 · 41. 여호와와 치리에 대하여 · 42. 사망과 부활 · 43. 마귀를 대적하라 · 44. 영의 세계에 대하여

Chapter 35.

만나의 시대와 흰 돌의 시대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사로, 거기에는 독특한 말들이 더러 등장합니다. ‘만나’니 ‘흰 돌’이니 하는 말도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2:17)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대충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미리 당부하신 것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물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단계의 학문이나 예술을

이해하려면 귀가 뚫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귀는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예술을 이해하는 귀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앞의 귀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열리지만, 뒤의 귀는 공부하면 열리게 마련입니다.

만나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게 되었을 때 내린 만나는 육의 양식이며, 주께서 이긴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육적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했던 양식으로, 일단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인 감춰진 만나도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리지만, 일단 목적지에 도달하면 인간이 완전한 영체로 화하므로 필요 없게 됩니다. 이 만나는 육적인 만나처럼 먹어서 배가 부르고 소화시키고 배설하는 생리작용은 일으키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일정한 느낌은 줍니다. 그 만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인 주의 피와 살로서(요6:48-54) 생수로 내립니다. 이긴자가 나타남으로써 그 생수(계21:6-7)의 만나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질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체험하여 잘 알고 계실 터이므로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만나가 내린 후에는 흰 돌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흰 돌은 주님을 상징하는, 건축자가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 (행4:11)이나, ‘산에서 뜨인 돌,’(단2:45) 또는 ‘일곱 눈이 박힌 돌’(속3:9)로, 주께서 이긴자에게 맡겨 주시는 돌이며, 그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숨은 경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히7:2-3, 고전2:7 참조)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중지시킨 것은 그 내용을 흰 돌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계10:4) 그것은 창세 이후 최악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 돌의 내용을 선포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영적인 만나의 은총이 내리고, 이어서 흰 돌의 시대가 펼쳐져야 거룩한 성안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흰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고 한 것은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전계획을 군사령관인 이긴자에게 극비리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군대가 될 성도는 이 사령관에게서 그 내용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만나의 은총을 맛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만나의 시대와 흰 돌의 시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흰 돌의 직분을 맡은 이긴자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마지막 테이

프를 끊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나타난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하나님의 성사업에 이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입니다. 세상일도 마지막 완성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영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업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완성자인 줄 알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긴자의 출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Chapter 36.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렇게 쓰신다

- 세대교체에 즈음하여 -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 오묘하여, 인간의 머리로는 좀처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불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논평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 많은 인간이 취할 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심령이 어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철부지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좀 더 하나님을 두렵게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자기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나와 주님과와의 거리입니다. 즉 나와 주님의 사이가 날마다 좁혀져가고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건 바람직한 일이며, 나와 주님과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면 남이 아무리

받들어 모셔도 실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좁은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눅18:8)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동틀 무렵에 큰 은총을 베풀고, 또 많은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새벽이고,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의 선지자들이 큰일을 한 것도 대체로 새벽이며,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이른바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새벽녘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육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 하나님의 종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따라서 자기도 유명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후의 신약 시대는 이와 정반대로 되도록 많은 사람의 영을 살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따라서 주의 종들도 공로가 커지게 됩니다. 이 영을 살리는 가장 큰 직분을 맡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죽어 가는 못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트기 위해 몸소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살리는 직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남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또 것처럼 참혹하게 죽어갔습니다.

주 전과 주 후의 양상이 이렇게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대에 따라 정반대로 작용한 경우지만, 신, 구약 시대를 통틀어 한결같은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교체시킬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을 부은 종이 설사 나중에 합당치 못한 점이 드러나 불가불 교체하더라도,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욕이 당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교체라 하더라도, 가령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울과 다윗의 경우처럼 한쪽이 버티면 하나님도 자연히 신경을 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로서는 왕위를 고수하느냐, 왕위에서 밀려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다윗이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안 될 리가 없지만, 일단 당신의 소중한 진액을 부은 이상, 명예에 전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하나님은 함부로 종을 갈아치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는 언제나 언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을 40년 동안 임금으로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울과도 그

런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40년 동안 왕좌에 앉혀 두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언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 기간 동안 임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이 차면 본격적으로 손을 쓰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는 이방인 블레셋 군의 손에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아오던 자로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불명예를 면하기 위해 몸소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원수로 여겨 죽여 버리려고 했을 때 몸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사울을 해칠 기회가 있었어도 살려 주었습니다.(삼상24:4, 26:21)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과 다투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불민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은인자중 하면서 오랜 시일에 걸쳐 사울이 저지른 실수를 서서히 회복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도 사울과 다윗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일찍이 여러분의 대다수가 몸담았던 앞선 역사에 대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척 염려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세워서 특별히 크신 은총을 베푸는 그 역사가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

니다. 그래서 서서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얼른 정돈하여 수습하기를 원한 나머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것은 영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시키면 또 다른 지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급선무는 먼저 온 여러분이 의로운 하늘나라의 군병이 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수십만 명이 모여 흥청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움직임을 이상 중에 보여주심과 안찰과 보고서를 통하여 세밀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세우는 때이며, 몇 해가 더 지나면 뽑아 인을 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의 눈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홀로 젊음을 불사르며, 이렇게 목매어 외치겠습니까? 앞에 훤히 내다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새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각자 자기 신앙을 가다듬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Chapter 37.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



기독교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살아 있는 영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이 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 또는 ‘성신’, ‘보혜사 성령’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모두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영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크게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자는 그 기능에 있어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성령은 주로 인간의 육신을 다스리고, 신약 시대의 성령은 주로 인간의 혼을 다스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인간의 육을 통해 역사하시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인간의 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 구약의 말씀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와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민16:22)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대하20:15)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군비를 강화하는 데 있지 않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호와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한 언제나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움직임이 잘 드러내 보여주는 두드러진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싸움의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즉 육의 싸움에서 혼의 싸움,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라는 그의 외마디 소리는 이 싸움에서 지른 탄성이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마귀)입니다.

그럼 신, 구약 시대의 성령은 인간에게 각각 어디까지 혜택을 줄 수 있었는가를 제사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 시대에는 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레 17:11)** 그러므로 피의 제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육적인 죄를 부분적으로 용서받을 뿐이었습니다. 성령 자체가 육을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민들로 하여금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즉 성소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송아지나 양, 비둘기의 피를 제물로 삼아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주로 국가나 민족의 잘못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성

소에서는 제사장이 날마다 개개인의 범죄를 인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히9:23)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대속의 제물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는 주의 피를 제물로 하여,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피 권세로 뿔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또 주께서 당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주께서 우리 죄를 대속했으니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죄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마7:21, 마10:38, 요6:53 참조)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약 시대에 제사에 대해 운운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단번에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또 무슨 제사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다를 뿐 신약 시대에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곧 제사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 때 주의 피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는 주의 생명이며, 주의 생명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피 곧 성령의 은혜가 임

하지 않는 제사(예배)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요컨대 영의 청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주의 피로 우리의 영을 깨끗이 씻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드린 이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아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보다 더 맹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같이하지 않는 예배는 백 번을 드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하면 즉시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긴 성경에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없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며.” (요일1:9) 이 말씀을 간단히 그리고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열 가지 죄를 짓고도, 주 앞에 잘못했다는 회개 한 마디로 죄가 척척 사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행2:38) 이 말씀에 보면 회개를 성령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란 어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회개해도 주의 피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6:53)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행

2:17) 하는 이 영이, 약속된 인물을 통해 역사하는 세 증거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리는 금 기름(속4:12)입니다.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의 연결을 받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자가 이긴자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좀 더 은혜 단계가 높아지면 죄를 짓는 순간 곧 성령이 와서 소멸시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불담’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계17:14)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바랄 수 없었던 보혈의 은총입니다. 구약 시대에 의인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속죄의 여건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즉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롬5:19) 길이 열린 것입니다.

Chapter 38.

영적 가나안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밀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4:1)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글자 그대로 평안히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미치지 못한 자란 평안히 쉬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을 얻으려면 세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첫째 단계는 애굽의 탈출이고, 둘째 단계는 고된 광야 생활의 인내이며, 셋째 단계는 가나안 원주민의 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단계를 무난히 거쳐야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둘째 단계에서 그만 실패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즉 모세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낼 때에는 바로(왕) 앞에서 열 가지 큰 재앙을 내리게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군대를 양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내세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사로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모세에게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시키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여호와와의 지시대로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3일 동안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출5:3) 그렇지 않으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부족할 때 하나님도 책임을 느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에

게 식량이 떨어지자 만나를 내려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물이 말라 갈증에 허덕이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 마시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세찬 바람에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모세를 원망하고 마침내 우상까지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추태를 부렸으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만일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패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대결이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도성을 비롯하여 많은 성읍을 차례차례 무난히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셋째 단계, 즉 가나안의 원주민을 모조리 쳐부수는 마무리 작업을 온전히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원주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철저히 이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삿2:20-22)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 미쳐, 여호수아 당시에 살아남은 원주민의 후손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을 소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그 보응은 이렇게 철저하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여호수아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한 마디로 말하면 인정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놈도 살려주고 저 놈도 놓아주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되어,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와 같이 자손만대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상은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영적인 가나안, 즉 인간이 죄에서 놓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세 단계의 시련을 겪고 이겨야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며, 셋째 단계는 마귀를 소탕하는 군대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계17:14)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달림을 받은 것처럼 성도로서의 고난을 감당해야 하며, 또 그들이 원주민과 싸워 이긴 것처럼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인도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한 육적인 사령관이 여호수아였던 것처럼, 천년왕국

에 들어간 연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를 소탕하는 영적인 사령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종, 이긴자입니다.(계 2:26, 14:16 참조) 여호수아의 경우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마지막 종이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릴레이 경주와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뛰는 릴레이 경주에서 승리는 맨 나중에 뛰는 사람이 테이프를 잘 끊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 배턴을 물려받게 마련입니다. 영의 역사에서도 나중 종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그는 영적인 릴레이에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귀를 소탕하기 위해 거느린 하늘의 특공대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12지파의 두령들에게 각각 분깃을 나눠준 것처럼, 이긴자가 성경에 기록된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의 지시에 따라 각 지파의 분깃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바 이긴자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계2:26)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권세는 ‘이기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계2:25)

나는 앞에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첫째 단계를 지나 둘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이 시련을 견디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를테면 영적인 십자군이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적과 싸우려면 일정한 기간을 입대하여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처럼, 영의 군대에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앞선 주자가 나중 주자에게 배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하고 쓰러진 격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주자는 그가 쓰러진 자리까지 후퇴하여 배턴을 이어받아 가지고 뛰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오늘날 여러 모로 고전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솔로몬은 쉽게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처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역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역사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적, 기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베푼 것이며, 당시에 곧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하고 또 그렇게 믿은 것도 모세의 언동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마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마

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에덴동산에도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를 피해 가지고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고 마는 것입니다.(계 13:8) 영화의 간판 한 번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외면하면서도 믿음을 지킬까말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와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두 이긴자의 사명이 다른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는 마귀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여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늘에서 오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에서는 신앙촌과 같은 울타리도 필요 없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은혜 체험이었습니다. 이슬을 받았고, 생수를 체험했다, 또 무엇을 보았다 등등. 그러나 이런 은혜의 체험만 가지고서는 영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가운데 접어들어야 합니다. 아니꼬워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날고뛰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수가 채워질 때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경 말씀대로 천지 이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니 틀림이 없습니다.

Chapter 39.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므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며, 잘못을 뉘우치면 곧 용서해 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이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수(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기독교도들은 바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를 믿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천 년 전의 말씀에 의해 신앙생활을 해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교역자들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린 지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을 뿐, 20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요긴한 하늘의 소식을 전해 주지 못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 의해 기독교가 시작된 후로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신도가 수백만을 헤아리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크게 발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은혜스러운 집회에서도 2천 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은총을 갈구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후로 많은 신도들은 약간의 은혜 체험에 의해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간증담을 들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껏해야 겨우 불이나 좀 받고 몇 가지 신령한 체험을 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시대에 120문도가 받은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육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으나, 영적으로는 약체를 면치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시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내세웠을 때 기독교가 싹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내가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이 태어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터이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창15:5)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마귀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내세워 마귀와 전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 쓸모없는 인간은 몇백 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창시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자기가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 교회문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본위의 신앙이지, 하나님 본위의 신앙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창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찍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지시(작전) 대로 극히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이유를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기 위해 미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진행해 간다고 합시다. 이 싸움을 위해 하수인에게 그때그때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은 싸움을 위해 내가 세운 계획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계획 전체를 알 수 없으며,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여 일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면 나는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대는 언제나 마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없거나, 있어도 극히 미약한 존재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체이며, 결코 만만한 적수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유사 이래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잘 믿었

지만 오늘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순간 우리의 위치는 마귀의 편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은 불리한 반면에, 마귀는 유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이런 역학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역사에 타격을 주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을 부은 사울을 자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긴자가 주의 피 권세로 알곡을 거둬 하나님의 뜻을 마무리 짓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큰 은총을 베풀어 당신의 백성들이 그 섭리 아래 들어와 하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역사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 울타리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못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신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며칠씩 철야해 가면서 기도하고, 40일 단식도 예사로 합니다. 성품도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어느 시대나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서나’

가 아니라, 당신의 큰 은총 가운데서 착실히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울타리 안에서 하늘 군대를 급속도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이 군대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밖의 무리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쓸모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해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릴 때, ‘그 감람나무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을 바란다고 예고했습니다.(호14:7)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기성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여러분이 에덴성회에서 받는 은혜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누구나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과 밖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총을 베풀어도, 여러분이 저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실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몇백 만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여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Chapter 40.

귀가 있으면 들으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 층, 만 층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창3:17)라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겉보기에는 고르지 못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괴로움 가운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각자 으레 괴로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교적’ 나은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은 자기 본위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기 쉬워, 여건이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행복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끼니가 떨어져도 그만, 병들어 죽게 되어도 그만, 마음은 무사태평합니다. 왜? 굳게 의지하는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어렵히 알아서 도와 주시랴 하고 내어 맡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 주께서 사실상 어느 모로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큰 은혜의 사슬에 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떠나 냉랭하게 되면 그보다 더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제일 불행한 것은 은혜를 놓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공경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전력 투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 설사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너그럽게 용납하지만, 적당히 믿을 때 하나님은 섭섭히 여기시는 것입니다.(계3:15)

하나님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컨대

초상집에 가서 송장을 만지다가 예배 보러 허겁지겁 뛰어와도 하나님은 오히려 기특하게 보시지만, 구약 시대라면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을 통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혼을 다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육적인 것을 도외시해도 좋으나하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 육 아울러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허술한 옷차림으로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나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뒤편에 앉아 꾸벅꾸벅 졸거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른을 만나러 갈 때에는 깨끗이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가서 그 분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가는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행자지(自行自止)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속:12](#) [참고](#))

우리가 신령한 것을 알아들으려면 신령한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정통하여 설교할 때 유식한 말을

많이 했으나, 반응이 신통치 않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고전2:2) 다시 말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만 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 이외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도 시들하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부흥사의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더욱 깊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신령한 이야기도 듣는 사람의 영적인 단계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즉 100%나 70% 혹은 50%쯤 받아들이는가 하면, 때로는 마이동풍 격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은 박사나 교수라 해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반면에, 불학무식한 할머니도 은혜 안에 있으면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으면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조화입니다. 요컨대 움직이는 것은 영의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일반교회에서는 김 아무개 목사에게 은혜가 많다고 해서 신도들이 몰려갔다가, 몇 해 후에 은혜가 떨어지면 이번에는 은혜가 많다는 강 아무개 목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많은 목

사를 따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경에 예언된 인물인 이긴자는 여느 목사와는 다릅니다.

이긴자는 은혜가 있었다, 끊겼다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이긴자가 나타나 신도가 만 명 모였는데, 은혜가 끊겼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큰 타격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는 자나 깨나 은혜 줄기가 끊겨서는 안 되며, 또 사실상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세 천사란,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와,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 그리고 인 치는 천사로,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비교적 자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계3:5, 7:3, 8:4, 14:8 참조)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긴자는, 이를테면, 인쇄에서 동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동판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에 걸친 연단이 필요했으나, 일단 동판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인쇄물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종이가 희고 검은 차이는 있으나 인쇄물은 똑같습니다. 이 종이를 희게 탈색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구약 시대에도 천사가 그와 함께 활약했지만, 예언된 계시록의 주인공이 나타나면 천사들이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는 성도들의 동태를 비롯하여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돌아보고, 제단을 주관하는 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살피며, 인 치는 천사는 주의 아내 될 자격을 갖춘 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이긴자를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3:5)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긴자를 주께서 택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실제로 주님의 택함을 입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주님은 이상 중에 이긴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인사를 시키며,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당신의 영적 만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소개가 끝나면, 이들 천사는 그 후부터 이긴자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을 같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에 녹명되려면 이 세 천사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히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관심밖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몇 주일씩 철야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언약대로 지상에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과거 2천 년 동안 기독교는 바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이긴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신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었던 말씀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계2:17)**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펼쳐질 때 그 역사를 훼방하는 것도, 주님을 훼방한 것처럼, 하나님께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긴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것과는 달리, 그를 해치려는 원수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 11:5)** 주께서 불담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Chapter 41.

여호와와 치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일에 여러 모로 참견하십니다. 여기에는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서 아래로는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時候)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으리라.” (레26:4)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낼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말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실은 메마른 산악 지대가 태반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땅” (신11:11-12)입니다. 그러니까 밭도 천수답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필 이런 메마른 땅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하여, 누구나 마냥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수 있다면 이들은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즉 생활에 시달리고 다급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므로 함부로 푸짐한 선심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까지 자상히 가르쳤습니다.(사28:26) 즉 모세에게 이상 중에 일일이 보여 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줄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그것도 번거롭게 감질날 정도로 매일 하루치씩 주었습니다. 설사 누가 욕심을 부려 며칠 분을 가져다 저장해도 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먹을 것이 넉넉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멀리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자 딱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불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도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처럼 자

연의 혜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총으로 지어야 하는 땅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신11:14) 농사가 잘 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를 제때에 내려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꼼짝없이 하나님에게 매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치 낚싯밥으로 고기를 낚듯이, 광야 생활에서는 만나로 당신의 백성들을 조종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 조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공경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병자, 또는 역경에 허덕이는 불우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세상에서 내로라하고 뚱뚱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은 생활을 즐기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호되게 당하여 그 모든 것이 거덜 나야 비로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잘 사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일수록 화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봄

시다. 그들은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갈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을 삼가야 했으며, 하나님께 이른 비를 내려 주 십사 하고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뭄으로 말미암아 땅이 굳어서 보습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 씨를 뿌린 후도 하나님께 씨앗이 마르지 않고 잘 싹트도록 비를 내려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씨앗이 메말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곡식이 싹튼 후에는 또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자라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에는 곡식이 잘 여무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를 알맞게 내려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알곡과 쪽정이를 가르기 위해 바람을 주십사 하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 따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게 마련이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딴 데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실제로 농사가 잘 되고 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힘입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되는 초막절의 시초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이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땀 흘려 일한 덕택에 농사가 잘 되었다는 엉뚱한 생각에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냥 넘기면 다음 해에는 흉년이 들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다.

이 초막절은 또한 1년 동안 지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명절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때 하나님께 제사지낸 떡을 먹는 자는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떡 자체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백성이 이 초막절 때문에 자범죄에서 놓여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친자식 돌보듯이 키워 왔건만, 이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책벌을 받았습니다.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놋이라.” (사48:4)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완악함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 선지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 시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책벌은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기본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만에 일이라도 당신의 종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목이 곧아 앞선 역사의 백성들보다도 더 완악하다.”는 책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이사야보다 더욱 여호와께 면목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 종을 따르는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경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Chapter 42.

사망과 부활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주어진 수명의 한계 안에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와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는 숨이 끊기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혼이 육에서 떠나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을 의미하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계6:8)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인간은 죽으면 육을 벗어버리고 혼이 음부에 가서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란 순교자 및 그와 같은 자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계

20:4) 즉 이들은 죽으면 혼이 직접 지성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계 6:9 참조)

그런데 어찌하여 사망 뒤에는 음부가 뒤따를까요? 죽음을 처음으로 인간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기를 부어 영원히 살 수 있게 지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창2:17)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은 죽는다는 것이 뭔가 하고 궁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죽음과는 인연이 먼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여간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비극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이때부터 죽게 되고 음부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지 않을 생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 얼마 지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다소 길고 짧은 차이는 있으나,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만간 죽게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자체가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인간은 죽을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음부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혼이 육신을 떠나 음부로 가는 것을 가리켜 ‘첫

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즉 사망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일단 음부에 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께서 갖고 계시니까요.(계 1:18)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계20:13-14) 이처럼 성경은 죽음(첫째 사망)이 끝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죽음에서 천국과 지옥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국은 두 세계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불못이 따르게 마련입니다.(계20:4) 그런데 이것은 물론 마귀가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가 깨어져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심판을 거친 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에는 아담, 하와 이후 하늘 군병을 제외한 수천 억의 모든 인간이 서게 되며, 마귀의 편에서 움직인 자는 하나님과 마귀의 규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못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옥’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그것입니다. 첫째 사망에는 음부가 따르고, 둘째 사망에는 불뭇이 따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순교자 및 그와 같은 자격자는 첫째 사망을 벗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을 모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사망을 벗어나야 첫째 부활에 이르고, 둘째 사망을 벗어나야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43.

마귀를 대적하라



1) 마귀의 권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록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구구할뿐더러 혼란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마귀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수인 마귀를 모르면 성경에 걸리는 데가 많고 올바른 구원관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찌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진리인 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마귀에 대해 자주 경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읽고도 예사로 보아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벌써 마귀의 장난에 놀아난 것이 아닌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만 한 일입

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속담에 “안 된 일은 조상 탓이라.”는 말처럼, 일이 여의치 않으면 마귀에게 떠넘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인간이 게으르거나 실수를 저질러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여 좌절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체험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해 단편적으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즉 마귀가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의 지배권을 빼앗기 위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그까짓 마귀쯤 뭘, 하고 마귀를 얹잡아 보았다가는 그야말로 큰코다치게 됩니다. 만일 마귀가 대단치 않은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당신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성령과 천사와 당신의 종을 통하여 밤낮으로 역사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영의 세계(에덴동산)를 능히 침범할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약4:7)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과 더불어 싸울 만한 힘이 없다면 상대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라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마귀와 우리의 힘이 겨룰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솟어나므로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마귀는 도저히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으나, 결코 만만치 않은 적수임에 틀림이 없으며, 또 이것은 성경 66권이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귀를 상대하여 싸울 때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므로 하나님이 전능하게 보이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전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세 이전부터 실재하여 하나님의 성업을 이모저모로 훼방해온 영체로, 우리의 핏줄에도 그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언동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쳐놓고, 주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거의 다 마귀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기거를 함께 하는 제자들이 이 모양인데, 딴 사람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비관할 것은 못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는 되어도 승자는 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 권세가 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의 피로 무장하면 마귀를 멸하지는 못해도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약4:7)

마귀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건설하는 입장에 있지만, 마귀는 파괴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루 빨리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사코 훼방합니다.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쉬운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 가운데 어둠이 깃들 수 있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고 자고하지 말고, 어둠 속에 빠졌다고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으며, 빛은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전능하시고 어둠의 저항을 받으며, 마귀는 어둠 속에서 전능하고 빛의 침노를 당하여 끝내는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계20:10)

그러나 마귀는 영체이므로 만만치 않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울 장안에 점쟁이들이 우글거리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마귀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 한 가닥 주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쟁이의 단골이 어찌다가 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나한

테서 안찰을 받으면 잠시 까무러치기가 일쑤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작은 전쟁에서 악령이 녹아웃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입김이 그를 소생시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로서 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요 8:44, 눅4:6) 마귀란 요컨대 모든 악의 총칭이며 그 왕초를 용이라고 합니다.(계13:4) 그 계교나 권능은 인간을 현혹하고도 남음이 있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고후11:14) 거짓 이적을 행하고,(살후2:9, 계16:14) 성경을 비뚤로 해석하는 등(눅4:10) 행패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하와를 꼬여내고 가롯 유다를 유혹한 것도 다 마귀의 농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그놈의 장난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님을 시험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매섭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명의 제 1조에 “나 이외의 딴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율법에, 그것도 제 1조에 당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를 외면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노라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자유의 율법으로 바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님의 피 권세로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등장했지만, 그래도 이런 불미스러운 경향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도 상대적으로 전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긴자에게 전무후무한 큰 권능(계2-3장 참조)을 부여하여 하늘 군대의 편성을 마치는(계7:4)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 우리는 마귀와 같이 산다

우리 교계에는 마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권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대뜸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 테지만, 이것은 내 진의를 잘 모르는 소치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과 마귀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하나님의 적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펴 나가는 마당에서 여러 모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실례의 하나가 주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될 수만 있다면 쉬운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긴박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눅4:6) 이 천하만국을 도로 빼앗기 위해 하나님도 비상수단을 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는 그런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투쟁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몸소 산 제물이 되어 ‘양의 문’이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올 수 없습니다.(요16:7) 왜? 대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것으로 강적 하나를 없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만일 마귀가 미리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더라면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고전2:8)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지닌 지혜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 일을 하면서 한 가정의 살림을 꾸려갈 때와는 달리, 비둘기 같이 내려온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주님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이를

테면 사생활에서 공생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구속의 주로서 전 인류를 위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류하는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고, 하늘의 도를 전파하기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40일 간에 걸친 하나님과의 교류는 구약 시대의 대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마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주님은 마귀를 상대로 싸운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나타나자, 마귀는 이 달갑지 않은 불청객을 그냥 두어서는 자기 쪽에서 당하게 되므로, 불가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양자 사이에는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접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 마디로 마귀는 일단 물러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주님에게 얼씬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때까지 이모저모로 사람들을 조정하여 자기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귀가 손수 자기 무덤을 판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마귀가 보기 좋게 역습

을 당한 것입니다.

구원이 어려운 것은 마귀가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에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잘 믿어 보려고 하면 으레 마귀가 본인의 성격 및 육체적인 약점을 통하거나 측근을 앞세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주님을 부르지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이 어머니를 부른다고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건지려면 어머니가 뛰어와서 배를 띄워 아들을 건져내든지, 아니면 밧줄이라도 던져서 아들을 붙잡게 하여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물(마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노라.”는 한 마디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주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으레 연고 없는 시험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때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이런 당치도 않는 괴로움이 닥칩니까?” 하는 기도 소리는 입 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렇게 당했거늘, 하물며 죄 덩어리인 인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고.

Chapter 44.

영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므로 영의 세계를 이야기해도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동화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의 입장에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삼라만상보다 훨씬 광대 무변하고 호화찬란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쉽게 비유해서 — 이 비유는 적당치 못하지만 — 가령 이 세계를 아프리카 산악지대의 미개한 원시 사회라고 친다면, 그 세계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미국과 같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규모나 그 아름다움, 그 복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천국 또는 천당이라고 부르는 그 세계에 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 과일을 따먹으며 밤낮 찬송이나 부르고 살아갈까, 그렇다면 너무 싱겁지 않는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단조로운 곳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임금만 해도 자그마치 14만 4천명이나 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임금,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껏해야 1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 많은 왕이 다스리는 세계는 동산 정도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의 세계이고, 마귀가 주관하는 영의 세계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2층천이 그것입니다. 이 세계도 용을 위시하여 많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도 굉장히 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요컨대 하나는 빛의 세계요, 하나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조각가처럼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입김을 획 불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와 흙의 요소가 합쳐진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혼과 육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의 혼으로 화하고, 흙의 요소는 육으로 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어서 분해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각각 갈 데로 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아득히 먼 옛날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지가 발달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상종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문명이 싹튼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주님을 탄생시킨 것은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생기를 흙에 부어 지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육은 본래 흙이었으니까요.

그럼 땅에 오신 예수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의 혼은 흙과 티가 없으나, 우리의 혼은 흙과 티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100% 깨끗해진다면 땅에 계시던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조주로서(창1:26) 인간의 육을 입고 잠시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도 이목구비와 오장육부가 고루 갖춰져 있고, 시장기와 목마름과 슬픔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도 내시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에게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독소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즉 육은 같으나, 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섞여 있으나, 주님의 영에는 마귀의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깃들여 있는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

다. 깨끗하건 더럽건 간에 근원은 당신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깨끗한 것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 세계를 더러운 것이 흐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때 깨끗한 영을 되찾고 불결한 것은 버립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당신의 것을 많이 건지기 위해, 그 영을 정결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독생자를 보내고, 또 이긴자까지 보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우선 위로 하나님을 위시하여 서열이 많습니다.(마11:11, 18:4 참조) 그리고 이들 백성에게는 각자 족보가 있어, 어느 시대, 어디서 몇 해 살고, 은혜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진 대로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을 때의 생김새와 전혀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각자 영의 눈이 띄어 영적인 모습과 세상에 있을 때의 육적인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은 내 남편, 이 자식은 내 아들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간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반열에 해당하는 영들은 주께서 직접 호명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힙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서열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때 호명을 기다리는 자의 조바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들 14만 4천을 일일이 호명하는 것만도 세상 시간으로 치면 굉장

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심판대에서 한 사람씩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는 그런 시간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심판 받는 당사자는 자다가 깨어나니 심판대 앞에 선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14만 4천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총지휘자가 주님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죄상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이 불 구렁텅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큰 용광로 같은 것을 연상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지옥이란 요컨대 고통을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므로 지옥을 우습게 알지만, 마귀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는 규례상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나는 이상 중에 본 영의 세계에 대해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조만간 가야 할 곳입니다. 설마 여러분은 내가 정말 보았는지, 또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건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고 귀 밖으로 듣지는 않겠지요? “믿는 자에게는 보증으로 성신을 준다.”(고후1:22)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주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성신이 임재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보증입니다.

영의 세계를 깊이 알면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태평스럽게 주님을 위해 힘도 별로 기울이

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면 세상 것에 재미를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주의 종이 바울입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생명의 면류관뿐이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가기를 갈망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지성소에서는 바울을 위시하여 의로운 영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하루 속히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